

제15기 박물관대학 상반기과정  
인천대 HK중국관행연구사업단 제4회 화교포럼

# 화교 디아스포라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중국관행연구사업단  
Research Center for Chinese Practices



## 차례 / Contents

---

교육일정 • .....	3
한국 華僑에 대한 성찰의 전제_김태웅 • .....	5
이웃집 중국인, 화교_정혜중 • .....	15
인천 차이나타운 화교 淸館 이야기_강경표 • .....	27
인천 차이나타운 공간탐사_이창호 • .....	39
비단이 장수 왕서방의 흥망성쇠_김영신 • .....	53
Identity의 성체, 화교학교_송승석 • .....	63
인천화교의 한해살이_황금희 • .....	77



## 제15기 박물관대학 상반기과정 교육일정

- ◆ 주 제 : 화교 디아스포라
- ◆ 기 간 : 2013년 5월 3일 ~ 6월 28일
- ◆ 장 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석남홀

구 분	날 짜	강 의 주 제	강 사
제1강	5/3	한국 華僑에 대한 성찰의 전제	김 태 웅 (서울대학교)
제2강	5/10	이웃집 중국인, 화교	정 혜 중 (이화여자대학교)
제3강	5/24	인천 차이나타운 화교 淸館 이야기	강 경 표 (국립민속박물관)
제4강	5/31	문화유적답사	-
제5강	6/7	인천 차이나타운 공간탐사	이 창 호 (협성대학교)
제6강	6/14	비단이 장수 왕서방의 흥망성쇠	김 영 신 (원광대학교)
제7강	6/21	Identity의 성채, 화교학교	송 승 석 (인천대학교)
제8강	6/28	인천화교의 한해살이	황 금 희 (목포대학교)



# 한국 華僑에 대한 성찰의 전제

김 태 응

(서울대학교)





## 한국 華僑에 대한 성찰의 전제

### ◆ 목 차 ◆

1. 한말·일제하 한국 거주 화교를 주목하는 계기와 이유
2. 화교의 처지 및 그 변화 그리고 한국인의 화교인식
3. 인천부, 신의주부, 부산부 화교들의 처지와 연망
4. 군산부 화교의 처지와 활동
5. 오늘날 이주 노동자의 얼굴에 비친 90년 전 화교 노동자의 얼굴

### 1. 한말·일제하 한국 거주 화교를 주목하는 계기와 이유

- 근대 群山の 사회와 경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인과 더불어 동일한 도시 공간에서 살아가는 華僑를 발견(濱海園, 화교소학교 등). 이들은 한국인과 평화롭게 살기도 하지만 대립하고 갈등하기도 함.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만 할 수 없음

- 2007년 중국해양대학 한국학과에서 한국 화교 강연. 이어서 국제학술대회에서 일제하 군산 화교의 처지와 활동을 발표. 중국인 학자들이 질문한 내용은 왜 한국의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는 화교를 탄압하였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질문함

-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복합문화) 문제가 제기됨. 그런데 주로 인권, 여성학, 한국어 학습 등의 차원에 국한됨. 문제의 본질과 이에 따른 정체성 문제를 이해하려면 역사적 접근도 필요함. 이에 일제강점기 화교 문제를 오늘 우리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 여김

-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염두에 둠

!) 만보산 사건(1931. 7. 2) 이후 한국인의 화교 배척 사건을 민족문제, 문화갈등으로만 볼 수 있을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없을까

!!) 한국인들은 계층, 계급에 따라 다르게 보지 않았을까 또한 동일 계층, 계급이라고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지 않았을까

!!!) 한국 화교의 쇠퇴가 이승만, 박정희 정부의 탄압에서만 기인하였을까 혹시 동아시아 국제정세 변동과 관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짐

- 접근 방식

!) 화교의 처지 및 그 변화(존재 문제) 그리고 화교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각(타자의 시각)--시계열적인 접근

!!) 여러 도시에 거주하는 화교들의 처지와 활동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동일한 한반도 공간에서도 경제지리학적인 세부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입증  
--비교분석적인 접근

!!!) 동일 도시에서 살아가는 화교의 삶을 미시적으로 파악  
--미시적인 접근

## 2. 화교의 처지 및 그 변화 그리고 한국인의 화교인식

- 임오군란 이후 화교 상인들이 내한. 상업 활동 전개. 비록 청일전쟁으로 타격을 입었으나 곧 회복하여 그 숫자는 늘어나는 추세임. 이후 대한제국기 서양식 건축물 붐과 함께 화교 석공·목공·미장이·토공들이 유입. 이어서 요리사·이발사·사기꾼·도박사·매음부·곡예사 등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이 땅에 유입  
cf. 짜장면의 탄생

- 한국인 개화 식자층은 문명개화론에 입각하여 멸시관을 견지, 화교의 경제 활동을 경계(독립신문), 일반인들은 전통적인 되놈 의식에 입각하여 인식. 일반적으로 문화적 배타의식이 강함

- “채주는 곶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

1899년 봄, 「독립신문」에는 어떤 청나라 사람이 원숭이를 데려와 그 채주를 보여주고 대한 백성의 돈을 뺏어간다는 기사에서 유래함

- 1920년대에 들어오면 문화적 배타의식과 함께 생존권 차원에서 인식하기 시작함

- 일제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공사가 증가하면서 중국인 노동자의 조선 입국자가 많아짐. 1922년 2만 여명임. 거주 화교인구는 3만 여명임(신의주, 인천 등). 1928년에는 5만을 초과함

- 한국인 노동자와 일자리를 둘러싸고 경쟁함. 일본인 자본가들은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총독부 묵인 아래 중국인 노동자를 대거 고용. 나아가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을 방해하고 임금을 억제하는 데 중국인 노동자를 적극 활용

cf. 일본 본국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 노동자의 渡航 엄격 통제

- 한국인 노동자와 중국인 노동자의 갈등이 심각해짐. 여기에 신문 언론들이 가세. 한국인들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자기의 일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입을 자국에 송금함으로써 조선 경제의 부가 유출된다고 여김. 그리고 여기에 성범죄, 어린이 유괴 등 윤리 문제가 덧붙여지면서 경제, 문화 갈등이 폭발하기에 이름



「조선일보」 1931년 6월 6일-만보산 사건(1931년 7월 2일) 발발하기 26일 전

- 만보산 사건 소식이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전해짐. 이는 한국인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화교 배척 사건으로 확산됨

- 인천, 경성, 평양, 신의주 등지에서 화교 142명이 피살됨. 546명이 부상하고 91명이 행방불명됨

- 한국인 노동자들이 화교 배척 폭동사건에 가담함(유죄확정자 508명 중 224명에 달함). 중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노동운동에 방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임

- 민족주의 계열 식자층 내부의 상이한 인식

- 안재홍 등 비타협적 민족주의계열: 만보산 사건을 보도한 이유는 재만 한국인에 대한 중국 당국의 압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그러나 결과적으로 동족애에 갇힌 나머지 일제의 침략 공작과 중국의 주권회복 노력을 간과한 측면이 많음(민두기 교수). 그러나 그가 이전에 보인 행태(국제적 연대 강조)를 보면, 약자의 처지에 몰린 민중의 생존권 자체에 초점을 둠. 이후 재만 동포의 안전을 염려하여 국내 한국인들의 감정적 배태주의를 경계하면서 한중 연대 의식을 강조

cf. 사회주의자들의 동향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처음부터 한중 인민의 연대라는 원칙을 내세움. 그러나 당대 현실과 괴리된 측면이 없지 않음

- 송진우 등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국제정세를 냉정하게 분석하면서 일제의 ‘검은 손’을 우려하여 신중히 처신. 또한 한국인들의 화교 배척 사건을 비판. 그러나 중국인 노동자의 근면과 신용을 칭찬하는 한편, 한국인 無信, 懶怠를 비판. 나아가 조선일보와 달리 중국인 노동자의 유입 제한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함. 윤치호와 이선근도 이러한 자본주의적 윤리관을 공히 견지함. 윤치호의 경우, 중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장악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임금 요구와 관련된다고 인식함. 나아가 윤치호는 화교배척폭동사건을 진정시키는 데 노력하는 한편 내면적으로는 만주 치안 확보를 위해 일제가 만주를 장악할 것

으로 회구함(『윤치호 일기』, 1931. 7. 3). 당시 한국인 자본가들의 만주 진출 욕구를 대변함

cf. 김동인의 『감자』(1925), 『붉은산』(1933. 4), 김정구의 노래, ‘비단장사 왕 서방’(1938) - 돈만 밝히는 중국인 회화화

### 3. 인천부, 신의주부, 부산부 화교들의 처지와 연망

- 인천부: 1880년대에 이미 同順泰(사장 譚傑生)를 비롯한 상인단체들이 활동함. 이후 전쟁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 동순태는 1920년대 국제 납부액이 최고임. 이 점에서 인천은 화교 상인들을 중심으로 연망이 구축됨(포목상, 요리집, 채소재배, 이발사 등)

그러나 일제의 관세 정책과 화교 배척 폭동 그리고 만주사변, 중일전쟁 등으로 인해 타격을 입고 중국으로 귀환함. 화교의 정주화는 여타 도시보다 빨랐지만 국제 정세의 불안과 전쟁 등으로 상권이 약화됨

특히 친일정권인 왕조명 정부가 들어서고(1940) 일제가 친국민당 화교들을 탄압하면서 화교 사회는 분열되고 緣網이 동요하기 시작함. 이후 화교 연망의 복원을 어렵게 함

- 신의주부: 인천부와 달리 중국과 연접하고 북부 조선 공업화 지역에 자리한다는 점에서 화교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연망 형성. 정주화는 인천에 비해 늦었지만 국내외 파동에도 불구하고 정주화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팔 수 있는 자산이 노동력뿐이므로 조선에 남아 생존을 도모함. 그러나 인천부와 마찬가지로 일제의 탄압과 화교 사회의 분열로 인해 연망 역시 작동이 약화됨

- 부산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일본인이 상권을 이미 쥔 상태라 화교들의 활동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떨어짐

## 4. 군산부 화교의 처지와 활동

- 군산은 ‘쌀의 군산’이라 불림. 중국과 황해를 끼고 근접하여 화교들이 인천과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들어옴. 동순태 역시 조계지의 일부를 확보하고 분점을 설치

- 이후 1914년 조계지의 폐지로 타격을 입었으나 포목업과 일용 잡화 무역을 통해 꾸준히 성장. 1924년에는 인천상무공회의 분회를 설치, 1927년에는 군산중화상회를 설립

- 그러나 일제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중국산 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면서 화교의 상권도 약화. 특히 만보산 사건 이후 화교배척 폭동과 만주사변, 중일전쟁 등은 여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군산 화교들에게도 타격

- 군산부 일본인 상인들은 일본군이 산둥 지역을 침략하자 군량미를 제공하면서 다시 성장하기 시작. 반면에 남아 있는 화교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일제에게 협력하면서 汪兆銘 정권을 지지. 이에 친국민당 화교들이 반발하면서 화교 내부에서 갈등이 야기됨. 화교 학교 설립 등에서 극심한 분열을 보임. 이후 일제의 패망으로 자주파 화교들이 주도권을 장악

- 그러나 중국 내부의 국공 내전 재발과 한반도의 분단, 이데올로기의 대립 격화 등으로 인해 화교 사회는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함. 오히려 사회자본이라 할 연망이 흔들리면서 차이나타운을 건설할 수 있는 동력을 점차 상실해 감

- 물론 해방 이후 화교들은 한국 경제를 주도할 만큼 다시 성장함. 무역액(수출입)의 80여 %를 장악

-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정부의 화교 정책(제반 인허가 제한, 짜장면 가격 규제, 부동산 및 동산 매매거래 제한, 화폐개혁 등) ← 화교들의 상권 장악 우려,

일제하 화교(상인, 노동자)들의 활동에 대한 피해 경험

cf. 영화, ‘비단이장사 왕서방’ 상영, 1961년

→ 화교 인구 격감. 1975년 당시 5만 7천 명에 지나지 않음

## 5. 오늘날 이주 노동자의 얼굴에 비친 90년 전 화교 노동자의 얼굴

- 요컨대 다문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제적 갈등 문제도 깊이 고민해야 함. 그러나 국내의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점점 풀기가 어려움

cf.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폐지 및 이민 가능성 논의(←자본의 요구?)

\* 화교 자본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다룰 필요가 있음

- 근래에 화교 자본과 중국인 관광객 유입의 일환으로 인천 등지에서는 차이나타운을 인위적으로 건설하기도 함

- 근래 화교 자본의 침투에 따른 우려가 나타남(부동산 구입 등)

cf. 1998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화교 학살 사건





# 이웃집 중국인, 화교

정 혜 중  
(이화여자대학교)



# 이웃집 중국인, 화교

## ◆ 목 차 ◆

1. 들어가면서
2. 화교의 조선진출
3. 수도권 화교 정착
4. 조선의 화교분포와 특징
5. 나가며

## 1. 들어가면서

2만 정도로 추정되는 한국화교와는 달리, 500만을 넘는 인도네시아, 타이 등 동남아시아의 화교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중국에서 외부로 이동하였다. 화교들의 이동시기를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그 기원은 10세기로 보고 있다. 이후 중국에서 화교 이주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16세기 후반이었다. 화교 이동이 본격화 된 것은 1840년대 중국 개항 이후부터였다.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역사적으로 오랜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그러한 장구한 역사에 비하면 현재 화교 정착과 발전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미미한 상황이다. 이는 한국화교가 19세기 개항 이후 청국영사관이 개설되며 서울·인천·부산·원산 등에 차이나타운이 건설되었고, 청일전쟁과 일본 식민지배, 제2차 대전 그리고 6·25, 중국의 참전 등 민족 대립 상황과 더불어 한국정부의 배타적 화교정책으로 이들의 경제적 활동이 제약을 받는 등 다른 어느 지역보다 그 정착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점과 깊은 관계가 있다.

## 2. 화교의 조선진출

조선의 화교진출은 1882년 6월 임오군란 때 상인 40여 명이 군대와 함께 조선에 들어오면서부터이다. 이들은 2년 후 군대철수와 동시에 대부분 철수하지만 그해 10월에 체결된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으로 중국인들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조선에 들어올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장정에서는 淸商務委員의 치외법권이 인정되었고, 평안·황해도 방면과 청국 山東지방에서의 고기잡이가 서로 허용되었고, 청국 상인들에게 개항장이 아닌 서울 양화진에서 점포를 열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었다. 청국 상인들에게 내지통행은 금지되었지만 허가를 받으면 언제든지 여(행)권, 즉 護照를 가진 경우, 개항장 밖에서도 통상이 가능한 내륙통상권과 연안무역권까지 인정되었다. 이러한 법률적 조치에 따라 이듬해인 1883년부터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중국인들의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1>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 조선에서의 화교 추이

연도	호수	인구			연도	호수	인구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1883				162	1911	2,889	11,145	692	11,837
1884				666	1912	3,427	14,593	924	15,517
1885				264	1913	3,875	15,235	987	16,222
1886				463	1914	4,076	15,745	1,139	16,884
1891				1,480	1915	3,821	14,714	1,254	15,968
1892				1,805	1916	4,448	15,496	1,408	16,904
1893				2,182	1917	4,723	16,241	1,726	17,967
1906				3,661	1918	4,728	20,264	1,630	21,894
1907	1,713	7,739	163	7,902	1919	5,218	16,897	1,691	18,588
1908	2,012	9,600	378	9,978	1920	6,925	21,382	2,607	23,989
1909	1,865	9,163	405	6,568	1921	7,093	21,912	2,783	24,695
1910	2,790	10,729	1,089	11,818	1922	9,647	27,623	3,203	30,826

楊昭全·孫玉梅著, 『朝鮮華僑史』, 中國華僑出版公司, 1991, 125쪽, 130쪽.

&lt;표 2&gt; 1888년부터 1897년까지 인천항 출입자의 국적

연도	입항자					출항자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서양인	계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서양인	계
1888	851	466	939	108	2,364	631	246	699	101	1,677
1889	1,398	469	1,065	132	3,064	957	274	820	108	2,159
1890	1,146	1,105	2,234	150	4,634	816	786	774	129	2,505
1891	1,478	818	2,741	128	5,165	1,184	577	1,096	129	2,986
1892	1,621	1,290	1,364	171	4,446	1,063	545	1,247	117	2,972
1893	1,610	1,760	1,466	117	4,953	1,509	952	1,052	115	3,628
1894	1,004	2,462	4,491	115	8,072	2,215	2,339	2,349	92	6,995
1895	1,859	2,137	7,629	141	11,766	729	1,732	7,082	117	15,610
1896	1,910	3,014	2,639	288	7,851	1,400	1,920	2,651	229	6,200
1897	2,645	4,411	2,373	343	9,772	1,782	3,960	2,762	294	8,798

1889년부터 1,000명이 넘는 중국인이 인천을 통해 계속 들어왔고, 1891년부터도 1,000명을 넘는 중국인이 인천항을 통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청일전쟁으로 인해 조선을 출입하는 중국인의 숫자가 크게 줄었을 것이라는 편견과는 달리 실상 조선에서 중국인의 숫자는 크게 줄지 않았다. 또 1897년 대한제국 성립으로 양국외교관계를 재개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1899년 「韓淸通商條約」이 체결되는 시기까지 중국인 증가추세는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을 출입하는 중국인의 숫자도 증가일로였다. 러일전쟁 이후 조선에서 일본인의 입지가 확고해지는 기간 동안에도 조선 화교도 3,000명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였고, 1910년 조선이 일본 식민지 수중으로 떨어진 이후에도 증가일로의 추세였다. 다만, 청일전쟁 직후인 1896년 8월 23일 唐紹儀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던 華商들은 3,000명을 넘었지만, 가게를 가진 상인은 200여 명 뿐이었고, 대부분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로 조선인들과 갈등관계도 복잡하였다. 이로 보건데 19세기 후반에 조선에 진출하는 화교는 주로 상인들로 이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러나 대부분은 경제적 상황과 법적지위 또한 열악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 3. 수도권외 화교정착

1883년 朝淸通商條約 체결 후에 수표교 방면에 20호 내외의 중국인 상인이 거주하기 시작하여 1885년 무렵부터는 수표교 일대와 남대문 부근에 있는 중국인 수는 300명 정도에 달하였다. 당시 중국인들은 서양의 면직물과 잡화 그리고 중국의 비단과 약재를 들여와 판매하고 한국에서 인삼, 곡물과 해산물을 수출하였다. 특히 同順泰라는 광동상인들이 서울에서 중국인 상인들을 좌지우지하며 조청무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많은 자금을 가지고, 홍콩, 상해 및 고베를 중심으로 조선과 중국의 무역에 종사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보이는 것처럼 동향회관을 중심으로 지역적 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었다.

인천에서도 지금의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인천은 1883년 1월 1일에 개항되었다. 그해 4월 13일에 상업을 목적인 소수의 일본인이 처음 들어왔고, 1883년 8월 19일에 통상사무를 취급하기 위한 기구로 감리서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1883년 말 인천에 중국인 조계설정이 계획되자 李乃榮이라는 사람이 영사업무를 취급하였고, 1884년부터 5명의 화교가 외국선박을 대상으로 잡화상 업무를 시작하였다. 1883년 11월 1일 조선과 청간에 정기항로 개설논의가 되어 상해와 인천간의 정기항로가 개설, 한 달에 한번씩 上海와 仁川을 정기운항되었다. 1884년 초에는 인천에 화교들을 위한 거주지가 마련되었다.

1883년 李乃榮을 비롯하여 서기, 조선통역 등 모두 5명을 파견하여 인천에서 화교들을 관리하였고, 통역의 필요성이 증가하자 1884년 3월 23일자로 일본어, 영어통역담당이 추가로 들어와 8명의 관리가 仁川에서 중국인을 대표하는 관리기관이 되었다. 화상사무관들은 입항하는 상인들의 성명과 출신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였다. 이들의 보고에 따르면 1883년에 적어도 33명 이상의 廣東, 浙江省을 중심으로 한 중국인들이 인천을 출입하기 시작한 이래 많은 중국인이 인천을 통해 들어오게 되었다. 3년 후인 1886년 3월부터는 日本郵船株式會社에서 長崎와 仁川, 煙臺, 天津을 잇는 정기노선이 열리며 이에 따라 山東省 상인과 주민들의 이주가 이전에 비해 늘어나게 되었다.

청일전쟁 후 인천에서의 중국과 무역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 중국과 무역이 1894-95년 청일전쟁으로 잠시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차츰 회복하여 일본과의 비교에도 뒤지지 않는 양으로 성장을 과시하였다. 무역량 성장을 배경으로 인천의 화교도 크게 늘어났다. 1891년 화교의 수는 521명이었으나 1897년에는 1,300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거주지와 남녀구별의 수치는 다음과 같다.

<표 3> 인천거류 청국인 호구 통계(1897년 12월 31일 조사)

거류지구분	호수	인구		
		남자	여자	총계
청국거류지	73	430	80	560
일본거류지	3	45	1	46
거류지외	81	611	114	725
총계	157	1,136	195	1,331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는 무렵인 1907년 말에는 가구 수 377호로 남자 2083명, 여자 73명 합계 2,156명으로 증가하였다. 화교의 증가로 다양한 직업이 출현하였는데 그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4> 1908년 직업별, 성별 화교의 인구구성

직업	호수	남자	여자	계	직업	호수	남자	여자	계
관리	1	3	2	5	장인	3	18	2	20
公吏	1	9	1	10	석공	3	12		12
잡화상	78	390	22	412	포목상	8	38	3	41
은행원	3	13	3	16	전당포	2	11		11
회사원	4	21	5	26	이발업	2	4		4
해관원	1	4	1	5	육류점	3	9		9
요리점	8	25	1	26	신발상	3	13	2	15
여관	4	27		27	미곡상	5	28	1	29
약방	3	7		7	잡일	28	63	2	65
장유제조	1	6	2	8	인부	3	48		48
아편흡입소	12	31	1	32	학교	1	4	2	6
양복제조	3	29	3	32	농업	92	180	3	183

잡화상 및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으나 생활보조를 위한 장유제조, 양복제조, 이발업, 육류점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늘어났으며 학교관련자도 보이게 되면서 1900년 이후 정착단계에 들어간 화교사회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무역항이라는 개항지 인천의 특성상 수많은 화교가 오가는 인천에서 잡화상이 가장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883년 이후의 외부 연결 네트워크라는 인천 개항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직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반해 농업인구가 1901년 인구 521명에서 22명이던 것이 1908년 인구 2,156명 183명으로 급증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청일전쟁 후의 화교사회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농업을 위주로 한 인구가 뚜렷하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인천은 무역항으로 발전한 것이다. 따라서 거주자 대부분은 무역 내지 그것에 관계된 업종에 종사하였으나, 1900년을 전후로 인구 증가 및 경인철도 부설 등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도 깊어졌다. 이에 따라 화교들 중에는 농업경영에 앞장서는 인물도 등장하였다. 화교들은 정착과 더불어 인천에서도 직접 야채를 경작하여 시장의 수요를 맞추고 있었고 1910년 전후까지 인천부근의 농업으로서는 이들 중국인 등의 농원이 부근 약 10곳에 있었다. 그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吳禮堂이 경영하는 吳禮堂農園인데 사과, 포도, 배, 복숭아, 서양앵두, 살구, 감 등을 재배하였다. 거점지역으로서의 仁川은 20세기 초 채소밭을 경영하는 山東인들의 “임시거주지”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1910-20년대에 들어오면 山東苦力の 仁川이주와 함께 山東人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화교사회로 변화해갔다.

#### 4. 조선의 화교분포와 특징

청일전쟁이 끝난 후 조선에 온 주조선상무위원 당소희는 1896년 8월 보호화상조규(保護華商條規)를 발표하고 화상들의 활동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3년 후인 1899년 양국은 주한통상조약을 제정해 영사관의 설치와 교민, 거주, 무역에 관한 법률 등 호혜 평등,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1906년에는 조선에 거주하는 중국인 수가 이미 3,661명으로 증가했고, 거



주 지역 또한 서울에 1,363명, 인천에 714명, 진남포 369명, 군산 365명, 원산 230명, 목포 94명, 마산 69명, 대구 33명 등으로 그 거주 범위도 다양해졌다. 산업 분포 또한 다양해져 농업 641명, 공업 276명, 목공 335명, 기타 상업 등으로 상업이 약 반수를 점했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화교가 개항 초기에 비해 월등히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1894년 6월에 비록 청상보호규칙을 통해 거주지를 제한하고자 시도했으나 20세기에 들어 화상들은 이미 항구를 중심으로 점차 내륙으로 확산되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었다.

1906년의 통계표에서 보듯이 서울과 인천을 제외하면 많은 화교들은 한반도의 북쪽 진남포와 원산 등 북쪽의 항구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러한 경향은 194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남쪽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화교가 거주했던 군산의 경우, 마산과 마찬가지로 1899년 개항이 되면서 화교들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후 1900년에는 인천의 청국 영사가 군산과 목포 영사를 역임하고, 20세기에 들어 인천과 군산의 해운이 본격화되는 것을 계기로 군산 등의 지역에 화교 거주가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1900년에 들어 화교의 활약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지역은 마산으로, 1899년 개항과 동시에 화교가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 세 곳은 모두 바닷길을 통해 화교가 한반도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를 보여 주는 하나의 지표다.

화교들은 1905년에 들어서면 대구 등의 내륙지역으로 계속 확산되기 시작한다. 이 무렵 대구에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33명의 화교 거주가 확인되고 1년 후인 1907년에는 64명, 10년 후인 1916년에는 무려 333명으로 계속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화교가 한창 발달 중에 있던 1933년 전국 화교 분포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에서 화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화교가 1910년대와 20년대를 거치며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가 30년대에 들어 그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데 이런 상황은 각 도시에도 마찬가지로였다. 이것은 1927년 12월 7일 500~600명의 조선인들이 전라도 이리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의 배화 폭동과 관련이 있다. 특히 1931년의 만보산 사건의 영향이 컸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화교 8,000명 정도가 배로 인천을 통해 귀국하거나 9,000여 명이 육로를 통해 중국으로 돌아가 1931년을 기점으로 화교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둘째, 대체로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경기권과 한반도 남쪽에서는 상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화교 인구가 많은 반면 북쪽인 평안도, 함경도 등지에서는 상업 활동과 더불어 공업에 종사하는 화교가 눈에 띄게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마산, 군산, 대구, 전주, 그 외 인천과 서울에는 도시 중심부에 거주하면서 상업에 종사하는 화교 인구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잇는 것은 농업이었다. 여기서의 농업은 주로 대도시민의 소비를 위한 채소 재배였기 때문에 화교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는 중요 원인이 되었다.

<표 5> 1933년 조선 화교의 도 및 주요 부·군별 거주 상황

道	府, 郡	호수	인구		
			남	여	합계
경기도	경성부	749	4,044	669	4,713
	인천부	390	1,383	437	1,820
	경기도 총계	1,675	6,843	1376	8,219
충청북도	청주군	41	136	19	155
	영동군	19	66	11	77
	충북 총계	163	442	72	514
충청남도	대전군	36	140	22	162
	공주군	28	101	13	114
	논산군	59	186	25	211
	천안군	43	143	22	165
	충남 총계	401	1,220	145	1,365
전라북도	군산부	103	337	48	385
	전주군	75	232	60	292
	전북 총계	475	1,409	253	1,662
전라남도	목포부	44	182	15	197
	광주군	47	158	26	184
	전남 총계	296	860	129	989
경상북도	대구부	95	356	56	412
	영일군	35	76	16	92
	경북 총계	322	1,016	153	1,169
경상남도	부산부	56	155	31	186
	마산부	9	30	3	33
	울산군	18	109	11	120
	경남 총계	232	701	124	825

道	府, 郡	호수	인구		
			남	여	합계
황해도	해주군	106	258	75	331
	재령군	57	166	57	223
	황주군	80	227	93	320
	풍산군	68	262	59	321
	황해도 총계	662	1,884	475	2,359
평안남도	평양부	281	1,025	259	1,284
	진남포부	102	389	95	484
	용강군	71	250	42	292
	평남 총계	744	2,793	584	3,377
평안북도	신의주부	955	4,190	1,422	5,612
	의주군	266	801	331	1,132
	운산군	281	528	321	849
	평북 총계	2,696	8,773	3,166	11,939
강원도	춘천군	22	63	9	72
	고성군	34	64	11	75
	강원도 총계	216	490	87	579
함경남도	원산부	168	570	191	761
	함주군	213	552	195	747
	장진군	152	735	63	798
	함남총계	1,162	3,509	833	4,342
함경북도	청진부	163	489	176	665
	경성군	160	453	104	557
	회령군	160	564	141	705
	함북 총계	1,074	3,115	812	3,927

## 5. 나가며

조선에서 화교는 청정부의 상인 보호가 청일전쟁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중국인의 조선 진출은 1930년 전후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런 보호를 받으며 19세기 말부터 부산, 원산, 인천 각지에서 조계장정이 체결되었고 이후 많은 중국인들이 이주해 무역과 광산, 농업, 포목상, 잡화상 등 다양한 사업에 종사했다. 마산, 군산 등이 개항되면서 20세기 들어서

는 한반도 연해 각지에 화교가 분포하게 되었다. 20세기 초반에는 대구와 같은 내륙지역에도 화교가 들어가 상업 활동에 종사하기 시작했고 1940년대까지 꾸준히 발전하면서 화교 거주의 중요한 거점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특히 포목상과 요식업과 같은 분야에서 이미 상당 부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특히 각 지역에서 자본과 운영을 공유하는 지점 형태로 일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시장 정보와 인력 면에서 일본 상인을 압도하였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지만 조선에서 화교 발전은 거듭되었다. 결국 그 발전상이 식민 통치자 제국 일본의 화교 탄압을 가져왔고, 19세기 말 계속되던 조선인과 화교 간의 마찰은 일본 식민지 상황에서 1927년과 31년 배화 폭동으로 연결되었다. 두 차례의 사건은 화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화교의 숫자는 곧 회복되곤 했다. 그만큼 화교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조선으로 이들을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이 무렵부터는 무역에 근거한 상업보다는 일일 노동에 근거하는 일반 노동자가 더 많이 유입되는 상황으로 변했다. 이 때문에 1930~40년대 평안도, 함경도를 중심으로 공업에 종사하는 화교가 증가하면서 도시에서 상업, 도시 주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남쪽 화교들과 차이를 보였다. 19세기부터 시작된 조선의 화교 유입은 처음에는 무역에서 상업, 농업으로, 그리고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의 정책에 따라 공업 노동자도 이어지는 상황을 보인다. 중국의 동북과 한반도의 북쪽을 통해 열린 공간이었던 조선과 중국을 비교적 자유롭게 오갔던 화교들은 남과 북이 각각 다른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정치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또 다른 국면을 모색해야 했다.

# 인천 차이나타운<sup>淸館</sup> 화교 이야기

강 경 표

(국립민속박물관)



# 인천 차이나타운<sup>清館</sup> 화교 이야기

## ◆ 목 차 ◆

1. 왜 화교인가?
2. 인천 화교 생활사 개관
3. 인천 화교 생활사
4. 노상영(盧常榮, 1958년 생)
5. 왕조용(王肇龍, 1966년 생)
6. 서학보(徐學寶, 1959년 생)
7. 다문화 사회에 대한 준비

## 1. 왜 화교인가?

인천 차이나타운에 대한 현지조사는 ‘다문화 조사’의 일환으로 시작하였다. 현대 한국 사회의 한 부분이 된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학술적 조명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다문화조사를 기획하였는데, 첫 번째 조사 대상지로 ‘청관(淸館)·차이나타운’ 등으로 불리는 인천의 북성동 일대를 선정하였다. 최초, 다문화 조사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조사 대상지로서 염두 했던 지역은, 다문화의 트로이카라 일컬어지는 안산시 원곡동과 서울 이태원, 그리고 인천의 북성동이었다.

이중 필자는 인천의 북성동을 선택하였다. 130여 년 전, 타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정착하여 자신들의 문화를 전승·변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집단인 인천 ‘화교’에 대한 조사야말로 역사성이 담보되어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서였다. 안산의 원곡동과 같이 생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보다 오랜 기간 동안 터전을 이루며 살아 오고 있는 화교집단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이 향후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전망을 하는데 있어 마침맞다고 판단하였다.

## 2. 인천 화교 생활사 개관

인천 지역 화교는 1882년 임오군란 때에, 참전한 청나라 군대를 따라 들어온 상공화교(商工華僑) 40명에서 역사를 시작한다. 이후 꾸준히 화교인구가 유입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산둥성 출신이었으며 초창기 화교들은 이른바 칼을 쓰는 세 가지 직업 즉 이발사, 재단사, 요리사 그리고 낫을 쓰는 농사를 주로 생업으로 삼았다.<sup>1)</sup> 이들의 후손들이 현재까지 같은 공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다. 한국 내 유일한 소수민족인 셈이다.

이들은 한국인들로부터 ‘짱깨’나 ‘짱꼴라’와 같은 말을 들으며 민족차별을 받았다. 중국 산둥성이 본적지이나, 한국전쟁 이후 한중관계 악화로 우리 정부에서 중국 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대만의 국적을 취득해야만 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는 곳, 주소는 인천이다.

1950년대에는 외래상품 불법수입 규제를 목적으로 창고 봉쇄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적절한 시기에 시장에 내놓아 수익을 올리던 화교 무역업에 큰 타격을 주어 사실상 무역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1953년과 1962년에 단행한 두 번의 화폐 개혁 역시 화교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화교들은 언제든 본국으로 떠날 생각으로 재산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은 새 돈으로 교환을 해 주지 않아 소지하고 있던 돈이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 경우가 많았다. 또한 1997년까지 이어진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점포와 농토를 소유할 수 없었다.

이러한 규제는 점차 완화되어갔다. 2002년에는 영주권을 인정받게 되어 영주비자(F5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 화교들은 거류비자인 F2비자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땅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일정 시기마다 갱신이 필요했으며 통장개설이나 핸드폰 개통도 할 수가 없었다. 화교들은 이때를 가리켜 “이제 막 공항에 내린 외국인과 같은 신세”였다고 회상하곤 한다. 지난 2005년 8월에는 선거법이 개정되며 한국의 화교들에게 지방선거권이 생겼다. 2006년 5.31 지방선거부터 화교들은 지방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이른바 ‘다문화 특구’ 조성 사업 등으로 여러 혜택을 받고 있다.

1) 이와 같은 이유로 초창기 화교세대를 가리켜 후세대들은 3도(刀)문화라 한다.



13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 인천의 화교들은 5세대를 맞이하고 있다. 화교가정 한국인 엄마가 70%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화교민들의 수가 그 윗세대보다 몇 곱절 더 많은 시대가 되었다. 첨밀밀보다 빅뱅과 소녀시대에 환호하는 화교들이 더 많게 된 것이다. 이러한 후(後) 세대들을 가리켜 ‘6.25세대’라 부르기도 한다. 중국의 피가 6.25% 섞인 세대라는 뜻이다.<sup>2)</sup> 인천의 화교들은 ‘전통의 유지’와 ‘융합’ 사이에서 꾸준히 고민하여 왔다.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고향의 그것 그대로 세시를 치르기 위해 애썼다. 또한 고향의 짜장면을 복원하여 ‘백년짜장’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팔며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본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 사회의 차별과 맞서 본인들끼리만 공고히 뭉친다면 후대도 똑같은 일을 겪을 것이라는 자성(自省) 하에 새로운 움직임들을 보이기도 한다. 차이나타운을 이룬바 ‘화교를 이해하는 소통의 창구’로 만들고자 자비를 들여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 3. 인천 화교 생활사

130여 년 전 부터 인천의 화교들은 고향의 그것 그대로 명절과 제사, 그리고 마을의 행사를 치르기 위해 애썼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화교들까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세월의 흐름 속에 그 절차와 방식이 간소화되고 변형되긴 하였지만 그 정성만큼은 그대로라고 화교들은 이야기한다.

### 4. 노상영(盧常榮, 1958년 생)

인천 도화동에서 경안각(慶安閣)이라는 중식당을 운영하는 노상영씨 역시 부모님의 방식대로 세시를 치른다. 음력 1월 15일, 우리에게겐 정월대보름날이 화교들에게는 원소절(元宵節)이다. 원소절에 중국 사람들은 등을 켜고 그 등불

2) 1세대 중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하여 낳은 자녀는 50%, 2세대는 25%, 3세대는 12.5%, 4세대 부모로부터 출생한 5세대 자녀는 중국의 피가 6.25%만 섞인 ‘화교’라는 의미이다.

을 구경하면서 원소라는 음식을 먹는다. 노상영씨도 원소절이 되면 제사를 지낸다. 집 안에 마련된 사당에 제를 올리고, 부평에 있는 아버지 묘를 찾아가 등을 밝히고 절을 한다. 이후 집에 돌아와 온 가족이 함께 원소를 나누어 먹으며 화목, 행복, 만사형통을 기원하였다.



<그림 1> 원소절 제사



<그림 2> 원소절 성묘



<그림 3> 가족들과 원소(元宵) 먹기



<그림 4> 혼 구멍에 밝힌 등

인천의 모든 화교들이 원소절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최근에 제사 절차를 간소화하듯이 젊은 화교들도 제사는 지내지 않고, 묘소를 찾아 등만 밝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천 화교 협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노상영은 화교사회의 주요 행사에도 항상 참여한다. 대만과 전 세계의 중국인들이 5.4운동 때 희생된 중국의 청년들을 기리는 날이 3월 29일 ‘청년절’이다. 인천 화교들의 청년절 행사는 매년 오전 10시 인천 화교학교 2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청년절 뿐만 아니라 화교사회에서 치러지는 대부분의 행사는 이곳에서 진행된다. 화교사회 주요 인사들과 지역주민, 그리고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여 청년절의 정신을 기리는 등 고향의 정신과 전통을 전승·공유한다.



<그림 5> 청년절 행사



<그림 6> 화교협회 임원진

## 5. 왕조용(王肇龍, 1966년 생)

인천 송도에 살고, 서울 연희동에서 ‘에버투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왕조용씨는 선친이 인천 용현동에 정착한 이래 현재까지 인천에서 살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가이드 시험 준비를 하여 합격해서 1990 년도에 서울에 있는 금룡여행사에 입사를 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현재의 부인인 인천 토박이 김미라(金美羅, 1967년 생)를 만나서 결혼을 해 슬하에 2남을 두고 있다.



<그림 7> 왕조용 김미라 가족



<그림 8> 대만에서 촬영한 웨딩사진

이 가족은 ‘화교 아빠와, 한국인 엄마’ 그리고 자녀들로 이루어져 있다. 2013년 현재 인천 화교의 70% 이상이 이와 같은 형태의 가정이다. 슬하의 자녀들은 주로 북성동에 있는 화교학교를 다니며,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한다.

본 고에서는 이 가정의 제당과 식생활을 간략하게 소개하려 한다. 화교 가정에는 대부분 소규모라도 제를 지낼 수 있는 제당을 갖추고 있다. 화교 아빠인 왕조용만 하더라도 과거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열과 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는 않는다. 그러나 집 한 칸에 제당을 만들어 놓고, 사업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나 가족의 건강이 염려될 때, 또는 복을 기원하고 싶을 때 향을 피워 제를 올린다. 이를 자녀들에게 강요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으나 아빠를 보고 자란 아이들도 제당에 향을 피우곤 한다. 가족 여행을 가기 전, 그리고 다녀온 후에 큰 아들 왕관예는 늘 향을 피워 가족 여행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고 무사귀환을 감사해 하며 시험 등 본인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향을 피우곤 한다. 한국 가수 아이유를 좋아하고, 중국말보다 한국말이 더 익숙하지만, 부모로부터 보고 배워 몸에 밴 본적지의 생활습관과 정신은 여전히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9> 왕조용 김미라 가족의 집 한켠에 마련된 관우 제당. 이곳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향을 피워 제를 올린다.

이들 가정의 식단은 한국의 그것과 닮아있으면서 차이점이 있다. 일단 사용하는 식재료는 거의 같다. 콩나물, 고기, 꽃게, 생선 등. 다른 점은 조리 방식이다. 남편인 왕조용은 콩나물을 삶아주고, 꽃게를 찌 주면 손도 대지 않는다. 자녀들 역시 어릴 적부터 할머니가 해준 음식에 적응을 해서, 삶거나 찐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 가정은 콩나물을 삶아 먹지 않고 기름에 볶아 먹는다. 꽃게 역시 볶아 먹는다. 식탁엔 항상 고기가 빠지지 않는다. 이러한 식습관 탓에 집에는 볶음용 프라이팬이 여러 개 있으며, 냉동실에는 1년 내내 만두가 보관되어 있고 가장 선호하는 선물은 올리브유이다. 인천 토박이 한국인 엄마 김미라는 혼자 밥을 먹을 때나 남편이 출장을 갔을 때, 콩나물을 삶아 먹고, 된장국을 끓여 먹는다. 아이들은 싫은 내색을 하며 엄마가 준 음식을 먹는다.



<그림 10> 새우볶음



<그림 11> 윈도 삼겹살 볶음



<그림 12> 볶음용 프라이팬



<그림 13> 고기 위주의 볶음 요리 식단



<그림 14> 화교아빠 한국인엄마 가정 일상식

## 6. 서학보(徐學寶, 1959년 생)

인천 북성동에서 만다복(萬多福)이라는 중식당을 운영하는 서학보씨는 필자가 차이나타운 문화전도사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던 분이다. 그는 사비를 털어 중국 전통결혼식을 복원하여 차이나타운 거리에서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뜻이 맞는 사람들을 규합하여 문화발전협의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화교문화를 한국사회에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각종 차이나타운 관련 회의에 나가 자문을 하는 등 한국사회와의 접촉을 통한 상호문화의 이해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특히 짜장면의 원형인, ‘백년짜장’이라는 메뉴를 복원하여 식당에서 판매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짜장면의 근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부둣가 노동자들이 먹던 음식이라는 설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산둥지역에서 넘어와 부두에서 일을 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값싸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학보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짜장면은 하층민의 음식이 아니라 귀한 음식이라는 것이다. 산둥지역에서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내놓는 음식이었고, 요리집에서 나오는 마지막 식사메뉴라는 것이다. 짜장면은 면과 고기, 그리고 장으로 만든다. 서학보에 따르면 과거 산둥에서 이 세 가지 식재료는 귀했다.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는 메뉴라는 것이다. 서학보는 지금의 짜장면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을 거듭 강조한다.

그는 최근의 짜장면을 ‘물짜장’이라 부른다. 그에 따르면 진짜 짜장면은 짜장소스에 물기가 없는 뽁뽁한 형태였다고 한다. 돼지고기를 그저 춘장에 볶아 그 소스를 면과 함께 비벼먹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해방 이후 연이어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한국사회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급재료를 사용하는 중국음식을 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환경에 맞추어 짜장면도 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림 15>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여 중국의 공갈빵을 선물하며 중국문화를 알린 서학보씨



<그림 16> 백년짜장

이전까지의 짜장면은 단가가 비싸기에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기 대신 호박, 양파 같은 것들을 넣었다. 값싼 채소류를 이용해서 양이라도 푸짐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이 간짜장이다. 지속적인 단가 절감을 위하여, 돼지고기도 살코기가 조금만 섞인 부위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장을 아끼기 위해 물을 타기 시작했다. 물을 타게 되면 장맛은 저절로 떨어지고 싱겁게 변한다. 그래서 그 장에 소금과 조미료를 넣고 맛을 냈다. 화학조미료의 등장은 짜장면이 물짜장이 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면을 비비기에는 물량이 많아서 잘 비벼지지 않았다. 그래서 전분을 풀어서 걸쭉한 소스형태로 만든 것이다. 인천의 부둣가 노동자들이 먹던 짜장면이 바로 이 묽은짜장, ‘물짜장’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물짜장은 한국사회의 변화모습을 잘 반영해준 것으로 시대의 변화상을 읽을 수 있다고 서학보는 말한다.

서학보는 100년 전의 짜장면을 복원하고 싶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문화에 대한 가장 큰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매개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싸고 대중 먹는 배달음식을, 진귀하고 맛있고, 격식을 갖추어서 먹는 웰빙음식으로 격상시키고 싶었다.

그는 화교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맛과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고증을 거친 끝에 ‘백년짜장’을 만들어 냈다. 그렇게 서학보는 백년짜장을 만들었지만 판매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다만 VIP 코스요리 마지막에 조금씩 먹으라며 제공했을 뿐이다. 그러다가 그것이 소문이 나고 기사까지

나가서, 그 소식을 접한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통에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부득이하게 메뉴에 올리게 되었다.

## 7. 다문화 사회에 대한 준비

인천 차이나타운이라는 문화접변(acculturation)의 현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며, 이러한 조사행위의 집성이 다문화 사회 이해에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화교민들이 적응하며 살아온 삶의 양상들을 보며 그들의 고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것을 배울 수도 있을 것이며,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마다의 가치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화교학교의 예를 살피며 견본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2013년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매년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이 늘어가고 있다. 단순히 서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범죄를 빈번하게 일으키는 낯설고 불편한 존재로만 인식하는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이 어울리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보단, 이미 우리에게 스며든 이 사회에 대해 접근하고 융합하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통 큰 이해’가 필요한 때이다.



# 인천 차이나타운 공간탐사

이 창 호

(협성대학교)



# 인천 차이나타운 공간탐사

## ◆ 목 차 ◆

1. 공간과 장소, 그리고 정체성
2. 장소에서 공간으로: 인천화교 및 차이나타운의 역사
3. 장소에서 비장소로: 차이나타운의 미래

## 1. 공간과 장소, 그리고 정체성

그동안 한국 화교에 대한 연구들은 여러 분과학문들에서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어왔다. 이들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 내에 화교라는 에스닉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억압과 차별을 받아온 소수집단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정작 이 집단의 내부적인 구성과 성격,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질서 지어진 체제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 화교를 어떤 장소에서든 단일한 사고와 행위를 하는 집단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에 에스닉 집단과 그 구성원들이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떤 전략과 실천을 하고 있으며 장소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그동안의 한국 화교에 대한 연구 결과가 항상 소수자에 대한 지위향상을 강조하게 된 것은 이러한 분석적 틀의 빈곤과 사례의 한계와 같은 요인들도 많이 작용했다고 본다. 필자는 이와 같은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념적 틀로 ‘사회적 공간’(social space)과 ‘장소성’(placeness)을 상정한다.

공간이란 더 이상 고정되고 정해진 존재론적 속성들이 아니라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들의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관계는 고유하

게 공간적이며, 공간은 사람들의 사회성의 도구이자 차원이고 사회적 관계의 조건 혹은 자질이다. ‘장소’가 영토적 한계가 정해진, 문화적으로 근거한, 그리고 교묘하게 경계가 정해진 사회들을 재현하는데 쓰여진 지리학적인 관용어라면, 이에 반해 ‘공간’은 ‘관계의 장’(field of relations)으로서, ‘장소들’이 활성화되어 사회적 관계들의 집합으로 전환된 것을 뜻한다(Corsín Jiménez 2003).

공간이 사회적 관계에 가깝다면 ‘장소’는 각 개인과 집단의 역사 및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오늘날의 공간과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장소(lieu 혹은 place)와 비장소(non-lieu 혹은 non-place), 근현대(modernity)와 초현대(supermodernity)의 개념을 차용한 오제(Augé)는 만일 장소(place)가 관계적, 역사적이며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면, 정체성도 관계도 역사도 상징하고 있지 않은 공간은 비장소(non-place)라고 정의될 수 있다고 말한다(Augé 1995: 77-78).

이러한 공간과 장소에 대한 정의에 근거한다면 인천 차이나타운은 그동안 한국 화교들의 관계망을 이끄는 중요한 사회적 공간이자 정체성의 장소로 기능해왔다고 볼 수 있다.

## 2. 장소에서 공간으로: 인천화교 및 차이나타운의 역사

### 1) 용머리 혹은 봉황머리

19세기 말 조계설정에서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차이나타운 및 인근 지역 화교들은 자신들의 삶의 공간과 장소가 일치했던 이른바 ‘영토에 근거한 공동체’(territorial community)를 형성했다.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특히 1961년 외국인 토지법이 인천 지역사회 내의 화교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면서 화교들은 ‘영토에 근거한 공동체’에서 ‘공간적 공동체’(spatial community)로 변모하게 된다(이창호 2007).

현재 차이나타운이라고 불리기 이전에 북성동은, 특히 선린동 일대는 화교들 사이에 ‘청관(淸館)거리’ 혹은 ‘쥬국동네’(중국동네)로 불렸다. 이 중국동네에서 화교들의 주요한 장소 중 하나는 현재 파라다이스 호텔(舊 올림푸스 호

텔)이 있는 작은 언덕이다. 호텔이 있는 지점에서부터 자유공원과 홍예문으로 이어진 모양이 마치 한 마리 용 혹은 봉황새처럼 보여 화교들 사이에 ‘용머리’나 ‘봉황머리’로 불린 이곳은 경치가 좋고 바다와 바로 접해있어서 이 지역 화교들의 어린 시절 놀이터이기도 했고, 중국과 인천을 오가는 선주들이 해신낭(海神娘)에게 무사히 항해를 마치기를 기원하거나 항해가 끝나면 감사의 예를 올리는 사당이 모셔진 곳이기도 했다(이창호 2009).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이 용머리 혹은 봉황머리는 도로개발로 인해 그 상징성을 잃어간다. 용머리는 지금 화교중산학교의 전신인 노교소학교(魯僑小學校)와 기숙사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 이 학교는 동향사람들 자녀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쳤다. 노교소학교 근처에는 동향회(同鄉會) 건물이 있었다. 이 동향회는 러시아군함을 개조한 리통선(利通船) 혹은 리통호(利通號)란 상선(商船)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배는 이후 덕적도 근처에서 미군 연합군 폭격에 가라앉았다고 한다. 차이나타운 및 화교사회는 조계지가 설정된 1884년부터 번성하기 시작하여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쇠락을 거듭하기 시작했는데, 화교들은 그 원인을 일제가 이 용머리 혹은 봉황머리를 잘라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sup>1)</sup>

## 2) 의선당

차이나타운 내에는 해신낭과 함께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관운장(關雲長), 용왕(龍王), 호삼태야(胡三太爺)가 함께 모셔진 의선당(義善堂)으로 불리는公所(公所)가 있다. 의선당公所 혹은 사묘 내부의 신단은 기본적으로 5단으로 구성되어있다. 의선당 내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중앙에 주불인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고 양쪽으로 각각 2단씩 신단이 설치되어 있다. 각 신이 책임지는 분야는 다른데, 예를 들어 배를 타는 사람들이 순항(順航)을 기원하려면 해신낭(海神娘)에게, 재산의 증식을 기원하기 위해서는 관운장(關雲長)에게 참배한다. 또한 각 신단은 위계가 정해져 있어 화교들이 의선당을 방문하면 먼저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에게, 그 다음은 관운장,

1) 그런데 이 용머리의 시련은 일제가 패망한 뒤에도 계속되었다. 1965년 이 용머리 자리에 올림포스 호텔이 들어선 것이다. 화교들은 이 호텔을 ‘박통시대’(박정희 시대)에 김종필이 지은 것이라고 알고 있다. 원래 중국사람 땅인데 박 정권 때 중국사람들을 쫓아버리고 호텔을 지었다는 것이다.

용왕(龍王), 해신낭, 호삼태야(胡三太爺) 순으로 참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림 참조).

서열	5			3			1			2			4				
신의 이름	동 자	호 삼 태 야	동 자	재 신	용 왕	약 신	보 현 보 살	관 세 음	문 수 보 살	주 창	관 운 장	관 평	귀	천 화	해 신 낭	자 손	눈

<그림> 각 신단의 구성과 위계

의선당은 민간의 잡신과 불교의 보살, 도교의 신선들을 한 곳에 모시고 향을 올리며 제사를 지내는 중국민간신앙의 특징 중 하나인 복합신앙(syneretism)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각 신들은 질서를 가지고 있다. 이 신과 신선들의 질서는 고향과 현실의 사회적 삶에서의 위계와 실제적 상황들을 비추는 거울처럼 작동된다. 또한 각 신들이 이주자들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생명과 재산에 관련되어 모셔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복신앙(祈福信仰)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물론 생명과 재산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지만, 화교들의 표현대로 ‘의지할 곳 없는’ 이주자인 화교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간절하게 인식되었다. 이들의 외로움과 간절함은 대개 그들 자신의 독특한 의례나 의식을 통해 재현되었다.

의선당은 인천 화교사회의 종교적 삶뿐만 아니라 이주자간 상호 돌봄이 어떠한 형태로 지속되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이곳의 과거 춘절(春節)때의 풍경은 다음과 같다.

춘절 때는 단체세배를 하죠. 화교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전에는 거기서 팽과리를 치고 용춤도 추고 그랬는데 지금은 간소화되가지고. 동네에서 시끄럽다고 그래서 안하고... 서로 향을 올리고... 회장급들이 부처님 앞에 서가지고 향 올리고 부처님한테 세배 끝난 다음에 서로 궂시궂시(恭喜恭喜) 하고 세배 하는 거죠. 거기서 먹을 거 조금... 과자하고 사탕이고 차고 준비해서 거기서 좀 먹고... 주사위도 좀 놓고...(Y씨, 남, 1954년생, 인천 차이나타운 내 만두집 경영, 부친이 의선당 관리인으로 가족이 18년간[1972-1990] 의선당에서 생활했다.)

서로 세배를 올릴 때 규칙이 있었는데 이것은 화교사회 내부적인 조직인 자먼리(家門裡)에서 몇 대(代)냐에 따라 상대방을 사부(師父) 혹은 제자(徒弟)로 부르며 대우한다는 것이다. 이 화교사회 내부의 조직은 흔히 청방(靑幫)이라고 알려진 중국사회의 비밀결사에서 유래한다. 청방은 19세기 후반 대운하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운수 노동자의 생계 수단이 상실됨에 따라 원래 나교(羅敎)의 신앙을 유대로 하는 운수 노동자의 단순한 상호 부조 결사가 밀매와 약탈을 생업으로 하는 ‘비밀’ 조직으로 전환된 것이다(이은자 2006: 174). 청방은 후에 청나라 타도를 위한 정치조직으로 발전되기도 했으며 1920년대에는 고력방(苦力幫)의 형태로 한국 내 취업을 주선하는 자치조직으로 기능(박은경 1986: 89-93)하기도 했으나 한국의 화교 사회가 정착하면서는 상호부조와 돌봄의 형태로 점차 전환되어갔다. 조직의 이름도 청방이 아닌 자먼리(家門裡 [裏]), 자이청리(在靑裡), 자이지아리(在家裡) 등으로 자주 불렸다. 이 조직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었다. 누군가 자먼리에 들어가고 싶다고 희망을 하면 선문을 열어(開善門)<sup>2)</sup> 의식을 거행한다. 자신보다 윗대인 사부에게 절하고 향과 차를 올리면서 사부님으로 모시겠다고 예를 갖추면 그 조직에 가입이 된다. 이 조직은 의리가 드높은 관운장을 신으로 모셨으며 상당히 엄격한 가법(家法)을 가지고 있어 간혹 사부가 제자에게 곤장과 같은 사형(私刑)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화교들은 이 조직을 오늘날의 ‘조폭’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려운 제자가 있으면 사부가 여러 제자들에게 그를 도와주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 경우 제자들은 따로 흔히 대두회(大頭會)라고 불리는 중국식 계를 조직해 같은 조직원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기도 했다. 조직원들의 가족들은 조직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원의 서열에 따라 다른 조직원 및 그 가족들과 촌수가 정해졌다.

이렇게 화교사회 이주 초기의 방(幫)은 오늘날 이주를 알선하는 현재의 인력 브로커(broker)와 닮기는 했으나 한국 사회 정착 이후의 자먼리는 경제적 이익만 취하는 브로커와는 상당히 다른 다양한 역할들을 이주노동자에게 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먼리는 1960년대 이후 쇠락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25대를 전후로 그 대가 거의 끊어져 와해된 상태이다. 당시 자먼리에 가입했던 화교들도 거의 세상을 떠났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의 등장

2) 선문을 인천 화교들은 ‘산문’(山門)이라고도 한다.

으로 언어적 장벽이 점차 사라진 것이 그 이유이기도 했지만 남북이테올로지 대립이 첨예했던 박정희 정권 때의 사조직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으로 인해 간첩활동 혐의로 오해를 받은 소속원들이 모처에 끌려가 매를 맞기도 한 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였다. 자먼리의 의식을 거행하던 중요한 장소였던 의선당은 자먼리 조직이 점차 와해되면서 이제 과거 상호부조의 정체성이 사라진 관광자원으로만 기능하게 되었다.

### 3) 공간적 공동체로서의 화교사회

1960년대 이후 한국정부에 의한 외국인 토지법과 도시개발로 인해 공동체적 화교 촌락들은 거의 모두 해체되었으며 화교들은 대부분 직종을 요식업으로 전환한다. 이들은 도시의 각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후이(會)나 결혼식, 장례식, 연례행사 등을 통해 모여 자신들의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즉, 한국 화교들은 ‘장소에 근거한 공동체’에서 점점 ‘공간적 공동체’로 삶의 방식이 바뀌어온 것이다. 즉, 거주국의 단일 민족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화교들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장소’들은 점차로 파편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들의 정체성은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신용 결사체인 후이(會)나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사회적 관계의 실천 속에서 확인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거주하는 장소보다도 관시망(關係網) 내의 사람들과 선물교환이나 계조직(大頭會 혹은 會[후이])과 같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사회적 관계의 공간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즉 화교들은 지리적 장소보다는 관시망이 바탕이 된 일종의 인지적 지도(地圖)에 근거하여 환경을 공간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이창호 2008b).

화교들의 공간의 인식과 실천의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대두회이다. 대두회의 개념과 원리는 비교적 간단하다. 즉, 화교 자신들의 말대로 “어떤 사람이 힘들 때 계를 만들어서 살려준다”는 것이다.

화교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장사하나 하고 싶은데 돈 없잖아요? 돈 없으면 안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서 계 하나 만들어서... 계 하나 만들면 예를 들어 한사람이 100만원도 좋고 200만원도 좋고, 300만원도 좋고 (정하면)...



300만원이 열 명이면 3,000만원, 20명이면 6,000만원인데, 그러면 6,000만원 빌려서 조그만 영업집 하나 장만할 수 있거든...

이렇게 후이는 특히 화교사회에서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이주지에서 아무런 자본이 없더라도 단순히 그의 관시(關係)만으로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부조체제이다.

종횡으로 연결된 각각의 네트워크는 대두회를 통해서 하나의 실제적인 ‘자본’(capital)이 된다. 즉, 인간관계로 연결된 사회자본은 후이를 통해 경제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후이를 조직한 사람은 이 자본을 활용하여 노동자에서 소상인 계급으로 신분을 전환시킬 수 있다. 따라서 화교들은 사회적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선물교환과 의례참석 등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야 하는지, 자기에 대한 나쁜 소문들을 어떻게 잘 차단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잘 분석해야 하는지 등에 굉장히 민감하다. 특히 화교들은 은행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유지는 각자의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 4) 공간의 변화와 지역주민간의 경합

그러나 화교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의 단일한 민족주의 정책은 한국 화교들의 삶을 점점 더 빈곤하게 만들었으며, 자신들의 보호처가 되어야 할 모국은 공산화되어 한국정부와 단교했고, 국적국인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지위를 잃어가고 있었다. 게다가 거주국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요식업종으로 삶의 기반을 마련해야 했던 화교들은 그동안 거주국에서 지녀온 문화적 자존심마저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

1992년 한중수교에 이어 1997년 외환위기 타개책으로 등장한 1998년 외국인토지법의 전면개정으로 인해 화교들은 종전 개인의 경우 660㎡이하의 주거용지와 165㎡ 이하의 상업용지 취득에 대한 제한과, 법인의 경우 사무용 토지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던 제한이 폐지되어 국내거주여부, 사무용 여부, 용도 및 면적 등에 관계없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화교들은 차이나타운에 다시 돌아와 음식점을 중심으로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으며 중국문

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과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정책과 맞물리면서 다시금 번성기의 기회를 맞는다.

화교사회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과 배제는 1992년 한중 수교로 인해 극적으로 전환된다. 비록 여러 제약이 따르기는 했지만 화교들의 거주 자격 및 학교교육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1995년에 화교들의 체류자격을 일반외국인과 다르게 완화시켰으며, 그동안 화교사회를 명들게 했던 외국인의 토지소유 관련법들을 1998년에 전면적으로 자유화했다. 화교교육과 관련해서는 그간 ‘외국인단체’로 등록되어 있던 화교학교들을 1999년부터 ‘각종학교로서의 외국인 학교’로 인가받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마침내 화교학교들은 ‘국내의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조세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우심화 1999).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자유로워진 1998년 이후 ‘달동네’같이 변해가던 차이나타운에 화교들이 토지와 건물을 사고 음식점을 시작했다. 구도심의 관광산업화를 지향하던 지방정부는 차이나타운 개발과정에서 지역 화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화교들과의 의사소통의 통로로 협의체를 만들 것을 화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안했으며 마침내 2004년에는 중국인과 한국인의 통합 번영회 설립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간, 이해관계간의 충돌로 인해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된다. 화교들은 2004년 6월 1일에 ‘인천 차이나타운 번영연합회’를, 한국인들은 2004년 7월 2일에 ‘북성동 번영회’를 발족한다. 또한 한국인과 일부 화교들이 모여 만든 ‘차이나타운 문화축제위원회’도 2008년 발족한다.

2004년 당시의 충돌은 화교 주민과 한국인 주민간의 장소에 대한 정체성에서 기인했다. 선린동과 함께 현재 차이나타운으로 개발되고 있는 북성동은 적어도 1974년 전까지 어시장(魚市場)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1975년 연안부두로 옮기기 전까지 어시장과 객선부두가 있었던 당시 북성동에는 어부들과 수도권 지역에서 생선을 사러온 상인들을 위한 식당과 여인숙들이 즐비했다(경인일보 특별취재팀 2001). 인천역 쪽에서 어시장으로 나가는 길 쪽 대로에는 막걸리집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흔해서 버리기까지 했던 물텀병이를 맵게 끓여서 막걸리 한잔을 마시면 공짜로 주기도 했다. 어시장 맞은편에는 ‘뽕골목’이라고 해서 뽕사람을 상대로 한 집창촌이 형성되기도 했으며 어시장 밑에

는 새우젓 골목이 크게 형성되기도 했다. 현재 인천역 맞은편의 제1패루부터 위쪽으로 곧게 뻗은 길과 언덕에서 크게 삼거리로 갈라지는 곳에는 여관, 여인숙, 술집들이 있었다. 당시 뱃사람들은 색시집에서 술을 마시고 여관이나 여인숙에서 잠을 자고 또 배를 타러 나가는 생활들을 계속했다.

부두와 어시장, 여관과 술집으로 번창했던 이 북성동도 1974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쇠락한다. 북성동의 어시장이 새로 지은 연안부두 쪽의 수산시장으로 옮겨가면서 더 이상 여관이나 술집을 이용할 사람들이 없었다. 예전에 언제든 드나들 수 있었던 부두들은 이제 양곡(제7부두)이나 고철, 광석(제8부두)을 처리하는 부두로 바뀌었고 높은 담장이 쳐져있으며 보안상 출입이 금지되어있다. 이후 북성동은 1990년대 말 차이나타운이 개발되기 전까지 전형적인 구도심으로 변해왔다.

1998년 이후 전개되기 시작한 차이나타운의 재개발은 화교들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점차 침체되어갔던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개발 호재(好材)로 다가왔지만 재개발 사업은 점차 중국문화와의 관련성 속에서만 진행되었다. 자연히 이 지역의 한국인들에게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한국인 푸대접이라는 양가 감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한국인 주민들에게 현재의 차이나타운 내에 40여년 넘게 존재해온 ‘뽕대이 회 거리’는 대부분 영세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번창했던 어시장이라는 장소의 기억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문화적 자원이 된다. 쇠락과 침체라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으나 한국인과 중국인의 거주지라는 상이하고 배타적이기까지 한 이 장소에 대한 기억은 차이나타운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된다. 한국인주민과 화교주민을 인터뷰해보면 각 주체들은 과거에 대해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과거는 모두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부유했는지, 각각의 장소에 누가 들어올 수 있었고 누가 들어올 수 없었는지가 척도가 되며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을만한 매춘이나 도박, 음주 등의 문제는 중요한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기억에서 제외시킨다. 이 둘의 경관에 대한 점유의지는 지방정부의 실제적인 차이나타운의 개발에 따라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이제 북성동 일대 차이나타운은 단순한 중국인 거주지를 넘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한국인 지역주민, 그리고 화교들의 전략이 서로 관련되거나 상충하는 하나의 장(場)이 되어버렸다.

최근인 2011년 2월에는 그동안 화교들이 결성한 차이나타운 상가번영회와 지역의 한국인 상인들이 결성한 북성동번영회가 해체되고 차이나타운브랜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sup>3)</sup> 위원회는 상인 56명으로 구성됐으며 차이나타운 활성화를 목표로 한 여러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차이나타운이 조성된 이래 상인 전체 차원의 위원회가 조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지만 차이나타운 내의 다양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미지수이다. 그동안 화교사회 내 같은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던 결사체를 뛰어넘어 다종족 결사체(multiethnic association)로의 변환은 동남아시아 화교 연구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Chan 2005).

### 3. 장소에서 비장소로: 차이나타운의 미래

차이나타운의 개발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차이나타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이래 오늘날까지 진행 중이다. 개발로서의 차이나타운은 중국인들의 역사적 맥락, 삶의 맥락과는 더욱 더 유리되어 깨끗하고 세련된 ‘명품도시’(인천일보 2007. 5월 9일자)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차이나타운은 중국인들의 실질적인 삶 속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무역회사와 쿨리들의 숙소가 있었고, 지방에서 화교학교로 유학 온 학생들로 가득 찼으며 문화행사나 금전적 거래 등을 통해 인천 화교들의 공동체적 결집장소로 사용된 이곳의 급속한 변화는 차이나타운을 종족성원끼리만 모여사는 일종의 ‘엔클레이브’(enclave)에서 개방적이고 ‘모범적인’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특히 차이나타운 일대의 관광지화가 본격화되면서 차이나타운에 기대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인천에 연고를 가지고 있었던 화교들이 자신들이 하던 사업을 접고 음식점이나 민예품점을 개업하는 경우도 있고, 개발붐을 타고 인천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건너온 화교도 있으며 중국대륙에서 건너온 신화교들도 저가공세로 기존화교들의 상권을 위협하기도 한다. 지역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개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차

3) 이 단체는 2012년 4월 현재 ‘인천차이나타운 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나타운에 들어온 한국인들의 경우 차이나타운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음식점의 상표를 법적으로 등록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차리는 등의 전략으로 주로 화교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음식점과 차별화하기도 한다. 차이나타운은 이제 한국인과 화교, 신화교들이 영업을 하는 음식점과 각종 상점들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이들 상호간의 경쟁과 대립 역시 보이지는 않지만 치열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과거 화교들의 공동체적 장소는 미디어와 박물관을 통해 ‘짜장면’의 이미지로 대량 복제되고 차이나타운 내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화교들은 이제 자신들의 삶의 공간을 차이나타운이 아닌 ‘짜장면 타운’이라고 자조적으로 부르기도 한다.

장소와 비장소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장소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비장소일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차이나타운은 한번 스치듯 지나치는 관광객에게는 비장소일 수 있지만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거주해온 화교들에게는 의미가 다르다. 그러나 이 위치는 언제든 역전될 수 있다. 매스미디어의 보급에 따라 관광객에게 차이나타운은 언제든 경험적 비장소 혹은 정체성의 장소가 될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 뿌리 없는 관광자원화와 상업화의 경쟁에 내몰리는 화교들에게 차이나타운은 비장소로 여겨질 수 있다.

장소에 뿌리내린 구성원 모두에게 차이나타운이 비장소처럼 여겨지는 일은 실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장소에 대한 감각 혹은 장소성이 점차 중요시되는 관광산업의 미래에 있어서는 더욱 더 그렇다.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관광지의 물리적 건설보다도 이 장소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회적 행위자들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보이는 일이다. 즉, 이들의 사회적 교환들, 기억들, 이미지들, 그리고 물질적 배경의 일상적 사용에 대한 통찰(Low 1999)은 차이나타운이라는 공간과 장소, 장소성의 장기적인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인일보 특별취재팀, 2001a, 『격동 한세기 인천이야기』 상, 인천: 다인아트.
- 박은경, 1986, 『한국 화교의 種族性』, 한국연구원.
- 우심화, 1999, “한국화교교육의 실태와 전망”, SEOUL中國學中心 주관 ‘화교네트워크와 차이나타운’ 심포지움(1999년 9월 17일) 발표문, pp.111-212.
- 이은자, 2006, “中國 秘密結社の 歴史와 現在”, 『중국학보』 53, pp.161-183.
- 이창호, 2007, “한국 화교(華僑)의 사회적 공간과 장소: 인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 , 2008a, “차이나타운의 재개발과 의미의 경합: 인천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1(1), pp.209-248.
- , 2008b, “한국 화교(華僑)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의 공간: 인천 화교의 관시(關係)와 후이(會)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4(1), 75-122.
- , 2009, “한국 화교의 민간신앙과 전설: 인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세계신화의 이해』, 서울: 소화, pp. 127-152.
- , 2011, “한국 화교사회의 정치적 조직과 역동성: 인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33, pp.41-85.
- Augé, Marc, 1995, *Non Places: Introduction to an Anthropology of Supermodernity*, London: Verso.
- Chan Kwok-bun, 2005, *Chinese Identities, Ethnicity and Cosmopolitan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orsín Jiménez, Alberto, 2003, “On Space as a Capacity”,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9(1), 137-153.
- Low, Setha M., 1999, “Spatializing Culture: The Social Production and Social Construction Public Space in Costa Rica”, *Theorizing the City: The New Urban Anthropology Reader*,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pp. 111-137.

### <자료>

인천일보 2007. 5월 9일자.

# **비단이 장수 왕서방의 흥망성쇠**

： 인천화교 반백년-개항(開港)에서 만주사변(滿洲事變)까지-

**김 영 신**

(원광대학교)





# 비단이 장수 왕서방의 흥망성쇠

: 인천화교 반백년-개항(開港)에서 만주사변(滿洲事變)까지-

## ◆ 목 차 ◆

1. 인천에는 언제부터 화교(華僑)가 정주(定住)하기 시작했을까?
2. 개항기 인천 화교의 경제활동
3. 일제시기 인천화교의 경제(經濟)와 문교(文教)
4. 배화(排華)의 소용돌이 속 인천지역 화교

## 1. 인천에는 언제부터 화교(華僑)가 정주(定住)하기 시작했을까?

“바닷물이 닿는 곳에는 예외 없이 화교(華僑)가 존재한다”는 말이 있다. 화교(華僑)·화인(華人)·당인(唐人)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 이들의 본격적인 해외진출은 대략 당대(唐代, 618-907) 이후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만큼, 양국 간의 교류 또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근대 이전 양국의 교역관계는 제한된 장소와 인원에 의해 이루어진 반면, 통상협정이 체결된 1882년 이후의 교역관계는 그 폭과 깊이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한국 내에도 화교사회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중국인의 본격적인 한국 진출의 법적근거는 1882년 8월 23일 조인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의 제4조에 있다. 이 장정의 조인과 더불어 중국의 대한정책은 이전에 비해 훨씬 적극적이면서도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무역장정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화상(華商)의 거주지가 마련되지

않아 화물의 보관이나 거주에 불편함이 적지 않은데다, 일본세력의 견제와 방해로 무역의 진전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884년 4월 2일 「인천구화상지계장정(仁川口華商地界章程)」이 체결되어 중국의 전관조계가 설치될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설정된 중국의 전관조계는 당시 해관(海關)의 서북지역, 곧 오늘날의 선린동(善隣洞) 일대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면적은 약 5천 평이었다. 화교의 이주는 이로부터 비로소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인천항을 통한 대중국무역이 덩달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 2. 개항기 인천 화교의 경제활동

개항 후 한동안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한국의 대외무역은 19세기 80년대에 들어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고, 1883년부터는 그간 일본상인에게 주어졌던 무관세 혜택이 폐지되었다. 이리하여 청일전쟁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대한무역을 둘러싸고 중일 간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었다.

청일전쟁의 패배로 한국에서의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라지자 승승장구 하던 화상의 지위도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끈질긴 생명력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들은 전쟁이 종식되자 다시 건너와서 상권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이는 무역형태의 변형을 꾀한 것이 주요한데다 일본인들과는 달리 신의(信義)를 가지고 거래에 임하여 한국상인이나 고객에게 호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개항 후 한국의 주된 수출품은 미곡·대두·우피 3종이고, 나머지는 해조류(海藻類)·지물(紙物)·활우(活牛)·우모(羽毛)·인삼(人蔘)·약재(藥材) 등이었다. 인천을 통한 중요 수출품 역시 콩·우피·사금 등 농산품과 광산물 정도에 불과하였고, 쌀은 한동안 수입품이었으나 1890년부터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한국의 전체적인 무역구조가 이러하였기에 개항기 인천을 통한 대중국수출품도 인삼과 사금(砂金)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인천항을 통한 대중 쌀 수출은 대부분 대련(大連)과 청도(靑島) 등 화북 및

만주지역으로였고 주된 소비층은 만주에 살고 있던 일본인이었다. 일본인의 만주진출이 늘어나면서 인천의 화상 가운데는 대련(大連)·여순(旅順)·영구(營口) 등지에 지점을 개설하는 자도 생겼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간 전쟁의 영향으로 인천항의 주된 수출품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한 것이 우피(牛皮)였다. 탄력성이 좋은 고품질의 한국산 우피는 일본으로의 수출이 대종을 이루는 가운데, 화상을 통해 만주로 수출되어 온돌방 깔개나 신발제조에 사용되었다. 또한 일부는 우장(牛莊)에서 건조한 뒤 상해로 수송되어 중국 내지는 물론 구미로까지 수출되었다.

예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관제(官制) 특산품이었던 홍삼(紅蔘)은, 1895년 수출금지가 해제되기 이전까지 매년 중국에 파견되는 경하사(慶賀使)의 공품(貢品) 혹은 이들을 따라가는 수행원이나 특허상인의 판매목적을 위한 휴대품으로 반출되었다. 개항 초기에는 백삼(白蔘)에 한하여 수출이 허용되었으나, 1895년에 이르러 일정한 세금만 납부하면 홍삼의 수로수출(水路輸出)이 가능해지면서, 인천항을 통한 인삼수출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금은 개항기 당시 이미 한국의 대외수출품의 대종으로 간주된 것인데, 개항 이후 수년간은 일본으로의 수출이 중국으로의 수출보다 월등하였다. 그러나 1890년대 이후 몇 년 간은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일본에의 그것을 능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은 많으나 중국으로 수출할만한 한국의 산물이 많지 않아 중국상인들이 무역결제금으로 사금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여름 의복으로 주로 사용된 마포는 국내 생산으로는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여 중국산에 의존하였다. 중국산 마포 수입이 언제부터 본격화되었는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1890년의 무역연보에 따르면 “마포는 예년에 비해 그 수입이 매우 증가하여 합계 8백여 담에 가격은 6만 1천여 원에 이르렀다”고 적고 있다. 수요에 비해 국내산 마포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비록 질은 떨어지나 저렴한 중국산 마포는 인천항의 화상을 통해 해마다 다량이 수입되어 한때는 인천항을 통한 대중국수입액의 70~80%를 차지할 정도였다.

중국무역에서의 홍삼이 차지하는 위치에 필적할만한 물건으로 일본은 견포의 대한수출에 신경을 썼다. 그러나 1889년 인천세관연보에 의하면 사주(絲紬) 등 수입액 가운데 화상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량이 상당하였고

중국상인들이 거둔 이익도 대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해에도 주단(紬緞)의 수입액이 상당하였는데 여전히 중국상인에 의한 수입이 대종을 이루었다. 이러한 추세는 1907년경에 이르러서도 변함이 없어 견포와 마포 두 상품만은 한국시장에서 중국상인이 일본상인과 경쟁이 가능한 품목이었다.

1887년경부터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소금이 수입되기 이전까지, 주로 원산과 부산을 통해 수입되던 일본산 소금도 1897년 무렵부터는 인천항에서 중국산 소금과 경쟁하였으나 얼마 못 가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였다. 당시 중국산 소금은 국산에 비해 3분의 1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었기 때문에 일본 소금을 제압하면서 그 수입량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었다.

한때 한국 전체의 수출에서 40~58%, 수입에서 52~63%, 총무역액에서 48~62%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인천항인지라 서울의 종로상인(한국인 육의전 상인), 니현(泥峴, 주로 일본인)상인, 남대문상인(주로 중국인) 등도 인천상인을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한국 전체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인천의 비중은 막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경인철도가 개통한 후에도 당분간은 변하지 않고, 1905년 경부선이 준공되고 이어서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한반도 종관철도가 완성될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1905년 한국전체 무역액의 50% 정도를 차지하던 인천항은 1910년대에는 20%대, 1920년대 후반에는 17%대로 하락하였다. 이처럼 대외교역에 있어서 인천항의 비중이 약화된 배경은 철도의 개통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청일전쟁 패배 후 인천항을 통한 대중국무역이 활기를 잃은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3. 일제시기 인천화교의 경제(經濟)와 문교(文教)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로 패전국민이 된 청국거류민들은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고 청국지계 또한 쇠잔(衰殘)함을 면치 못하였다. 이미 한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한 청국은, 먼저 일본정부에 인천·부산·원산 3항의 청국지계에 관한 협정 체결을 제의하여 1910년 3월 11일 「인천·부산 및 원산 청

국거류지규정」이 조인되었다. 이로서 청일전쟁 이후 애매한 상태 속에서 관습적으로 인정되던 인천 청국거류지는 그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후 인천거류지의 화교들은 자유롭게 거주와 통상에 임할 수 있었다.

한일합방 후 일제는 한국인에 대한 잔혹한 압박과 착취를 진행하는 한편으로 재한 화교에 대한 직·간접적인 제한과 박해를 통해 화교의 경제권을 약화시키고 일본인의 한국에서의 경제적 세력을 부식시키고자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목할만한 사실은, 인천지역 화상의 상권은 여전히 강력하였다는 사실이다. 합방 직후 잠시 움츠러들었던 인천항의 대중교역은, 이후 한국 전체 대외교역의 추이와 마찬가지로 일본국내의 사정과 세계정세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한 모습을 보인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세계적으로 장기적인 경제혼란기가 이어졌지만 한국의 대중무역 총액은 성장하였다. 다만 1920년 이후 인천항을 통한 대중수출은 1930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음에 비해, 대중수입은 1920년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천항을 통한 대중수출이 늘어난 것은 일본의 만주경영이 본격화 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대중수입의 위축은 화상의 활동영역이 점차 축소되어 갔음을 의미한다.

1924년 8월 법률 제24호 「사치품 등의 수입세에 관한 건」이 공포되어 중국산 견직물에 대한 관세율이 배나 인상되면서 인천항의 대중수입 총액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이를 두고 ‘대공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중국 견직물 상인들이 타격을 입기는 하였으나, 실제 화상의 경쟁력은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였으니 이는 이들의 독특한 경영형태와 수입선의 다변화, 운송수단의 자체적인 확보 등 여러 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인의 옷감으로 애용되는 면포(夏布)는 1924년 일제에 의해 사치품으로 규정되어 중국산 하포 수입이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한국산 하포의 질이 낮은데다 생산량도 많지 않아 중세(重稅) 조치 이후에도 중국산 하포의 수입은 다시 증가하였다. 인천에는 화상이 운영하는 면포점이 적지 않았는데, 원생동(源生東)·화취공(和聚公) 등은 전국적인 판매망을 확보한 대규모 면포상으로 명성이 자자하였다.

중국인이 경영하는 상점은 직물과 잡화를 취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일본인을 상대로 한 잡화와 식료품점도 있었다. 하지만 중국인의 민중생활과 밀

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업종은 음식점·이발관·차관과 반점(飯館)이라 할 수 있다. 고급음식점은 중국인 외에도 일본인과 조선인을 상대로 하기도 하고, 이발관 역시 고객이 일본인과 조선인도 포함된다.

한국화교사회는 그 성분구성에서 다른 지역의 화교사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초기 구미지역(歐美地域) 화교들은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남양지역(南洋地域) 역시 노동자와 상업종사자가 많음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농업종사자 또한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천지역은 특히 개항 직후부터 화교가 밀집한데다 일본인들까지도 화농(華農)이 생산한 소채(蔬菜)를 선호하여 한반도에서 중국인에 의한 농업경영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지역으로, 농업 생산을 통한 소득 또한 상당하였다.

일본인이나 한국인 농업종사자가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인천지역 화농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화농 경영의 특징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통해 적은 면적에서도 많은 소득을 얻었다. 둘째, 철저한 윤작으로 1년 4계절 땅을 놀리는 법이 없었다. 셋째, 비록 비과학적인 농경법을 이용하였지만 생산비가 적게 들고 규모가 작아 큰 실패를 하지 않았다. 넷째, 각 농가마다 양돈·양계 등 부업에 힘썼다. 결국 화농은 완전히 근면과 고난으로 그 생존을 지탱하였다.

인천 개항으로 본격적인 형성이 시작된 한국화교사회는, 청일전쟁 이전까지도 그들만의 자체적인 교육기관의 설립을 보지 못하였다. 당시 일부 부유한 화상들은 가정교사를 초빙하여 한 집안 혹은 여러 집안의 자제들을 교육하였는데, 당시 교육의 내용은 전통적인 사서오경(四書五經)의 교수(教授)에 머물러 있었다.

신식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화교사회 지도층의 의견이 일치하여, 1902년 4월 인천화교학당이 영사관 안에 세워져 30명 학생을 수용한 것이 한국화교 교육의 시작이다. 인천은 한국화교사회에 있어서 근대적 교육의 발상지이기도 한 것이다.

인천화교학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천화교공립양등소학교(仁川華僑公立兩等小學校)의 경비는, 인천주재 중화민국영사관이 취급하는 정부수입 가운데 지출되는 국고보조금, 국유재산 가운데 특별히 학교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정한 공유재산의 수입, 수업료 및 인천재류 화교의 기부금 등으로 충당되었다.

1930년 9월 산둥지역에서 반중양군사활동이 발생하였다. 그 영향으로 산둥성으로부터의 피난민이 다수 발생하자 인천노교소학교(仁川魯僑小學校)가 설립되었다. 이 학교가 설립될 당시 인천지역 화교교육기관은 상기 중국영사관 부속의 인천화교공립양등소학교가 있었으나 1931년 12월경 폐교되어 인천노교소학교로 수용되었다. 인천에 거주하는 중국인 자제의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학교는, 산둥동향회(山東同鄉會館)에 두어졌다. 산둥동향회의 기본 재산인 부동산수입과 산둥동향회의 협조로 운영된 이 학교는, 초급생과 고급생으로 나누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학비는 면제되었다.

화교사회의 성장 배경에는 주로 동향관계에 바탕을 둔 방회(幫會, 동향회관)와, 방회를 배경으로 거주지별로 설립된 상회(商會)라는 독특한 두 가지 조직체가 구심점으로 작용하였다. 한국화교사회에 방회는 한일합방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나 일제시대에 들어 더욱 완비된 모습을 보였다. 일제시대 화교사회의 방회조직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 역시 인천이었다.

인천의 화상 상회는 기존의 방회조직을 기초로 1913년 중화민국 상회법(商會法)에 따라 인천중화상무총회(仁川中華商務總會)를 결성하고 군산 및 목포에도 분회를 설치하였다. 그 뒤 중화총상회로 개칭하고 다시 1930년 신상회법에 따라 화상상회(華商商會)로 개칭하였다.

자발적인 방회로부터 출발하여 중화회관, 중화상회로의 자치조직의 변화는 화상의 상무경영에 대한 단결력이 자발적이고 조직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화상회의 기능은 화교학교 운영, 가옥 및 거주인의 조사, 상업쟁의의 조정 및 재판, 회원의 의뢰에 의한 재산의 정리, 상업발전상의 편의도모, 이주 및 생사의 사무, 구휼, 영사관으로부터의 통달 고시, 교민의 복리사업 추진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있었다.

#### 4. 배화(排華)의 소용돌이 속 인천지역 화교

1931년 7월 발생한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의 여파가 한반도에 몰아쳐 대대적인 화교배척사건으로 연결되었다. 국내에서 맨 먼저 배화사건이 발생하였

던 인천지역의 경우,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탓에, 인천지역 화교들은 수 십년 동안 쌓아온 삶의 기반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상실하여 사태해결 뒤에도 이전과 같은 성세를 누릴 수는 없었다.

대규모 중국인 배척사건이 발생하자 각처의 화교들은 인심이 동요하여 분분히 귀국하는 자 역시 그 수가 적지 않았다. 배화사건의 여파가 가라앉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9·18사변은 위축되어 있던 화교사회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인천의 화교인구 역시 대대적인 배화사건과 9·18사변의 영향으로 급감하여 전년의 2,427명에서 1931년에는 1,469명으로 1천명 가까이 감소하였다. 1932년에는 소규모 증가세로 돌아선 인천지역 화교는, 1935년에 이르러서야 1930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7월의 대대적인 배화사건과 9월의 만주사변이 연달아 발생한 이래 풍문이 흉흉하자 자본을 회수하여 귀국하는 자가 적지 않았다. 경인방면의 도매상들 가운데는 이미 도매로 넘긴 물건값을 회수하지 못하고 급거 귀국하는 자도 적지 않았다. 더구나 일본은행들이 확실한 담보물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화상에 대한 대출을 꺼려하여 무형중 화상의 어려움이 막대하였다. 화교의 경제실력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심하였으나 별다른 기회를 잡지 못하였던 일제는, 국제분규를 이용하여 암중 화교들의 경제권을 박탈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 내부 혹은 중·일 간에 중대한 정치·사회·군사적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한국화교사회의 인구가 대폭 감소하는 것은, 여타 지역의 화교사회에서는 쉽사리 발견되지 않는 현상이다. 이는 한국화교사회가 정치적으로 민감해서라기 보다는 본국으로의 귀환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중국대륙과 가장 가까운 인천의 이점은 현재와 미래에도 변할 수 없는 인천만의 장점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길이 인천의 화교사회가 이전과 같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 Identity의 성채, 화교학교

송 승 석  
(인천대학교)



# Identity의 성채, 화교학교

## ◆ 목 차 ◆

1. 화교사회와 화교학교
2. 초기 화교교육
3. 화교학교의 탄생
4. 同鄉幫 간 대립
5. 董事會 발족
6. 근대적 교육체계 정립
7. 조선총독부와 화교학교

## 1. 화교사회와 화교학교

### 1) 한국화교사회

- 해외이주민 中 가장 오랜 한반도 거주 역사(130년)
- 집단거주 형태의 공동체(차이나타운)를 구성한  
“거의 유일한 Ethnic Group”
- 한국사회 내 異國의인 특수집단 : 중국전통의 가치체계와 고유한 네트워크(信用, 地緣, 血緣, 業緣 등)가 상호유기적으로 작동 ⇒ 화교사회 공동체 원리

### 2) 화교학교의 기능

- 화교사회의 공동체원리(전통과 관행)에 대한 학습과 적용 그리고 실천의 場  
“화교학교는 화교사회의 중심이에요. 학교 없었으면 화교사회 진작 없어졌을 거예요.” (인천 僑領 孫德俊)

- 화교사회의 젓줄(후속세대 양성과 재생산)
- 차이나타운 중심 집단거주의 결정적인 이유

## 2. 초기 화교교육

### 1) 이주초기 조선화교사회

- 초기 조선화교사회 : 계절적 변화와 경기변동에 따라 이동을 반복하는 상인(특히, 무역업에 종사하는 남성) 중심의 “單身出稼型僑居社會”
- 경제적 안정과 結社組織을 통한 초기단계 사회체계 형성  
⇒ 고향의 家率들과 한반도 定住  
⇒ 자녀교육 필요성 증가

### 2) 초창기 화교교육

#### (1) 1894년 청일전쟁 이전

- 전통 漢學 중심의 私塾  
→ 고정된 학습시간, 학제 無  
→ 교수과목 : 三字經, 千字文, 百家姓, 名賢集 → 孝經, 四書五經  
\* 珠算, 算術
- 교육목적 : 문화교양의 修得(識字 등)/ 科擧 응시 ⇒ 중국 전통교육 질서의 원용

#### (2) 1894년 청일전쟁 敗戰 이후

- 중국 內 근대적 변화의 바람  
科擧制·八股文의 폐지 및 근대적 학교체제 도입 주창(1898년 戊戌政變)

- 조선 內 甲午改革
  - 과거제 폐지 및 근대적 興學의 기운 ⇒ 근대적 교육체계 필요성 인식
  - 과거를 통한 신분상승의 기회 불가능 예감
  - 현실적 판단(한학의 생활상 수요 추급 불가능)

### 3. 화교학교의 탄생

#### 1) 仁川華僑小學

- 인천화교사회 : 華商의 본거지
- 근대적 변화의 바람을 처음으로 포착
- 인천화교소학 설립(1902. 5)
- ⇒ 인천화교사회와 인천영사관의 합작 산물
- 한반도 최초의 화교학교/한국화교교육의 효시

#### • 인천화교소학

- 監督 : 張國威(駐仁川領事, 廣東省 출신)
- 校長 : 金慶章(駐仁川副領事, 江蘇省 출신)
- 校舍 : 仁川中華商務總會(청국영사관 관내) 결체.
- 학생수 : 30명 남짓
- 성격 : 기본 골격은 근대적 교육기관, 교과 내용은 사숙방식 원용한 한학
- 전통과 근대의 절충 → 근대교육에 대한 거부감/사숙교육 선호
- 인천화교소학(1902), 한성화교소학(1909), 부산화교소학(1912), 신의주화교소학 (1915)
- (학생 수 총합 : 100명 미만)

## 4. 同鄉幫 간 대립

### 1) 초기 인천화교사회

- 廣東省, 福建省, 浙江省 등의 南方 상인이 중심, 남방상인(55%)/산동상인(45%)  
동향방 조직 : 廣幫/南幫/北幫

### 2) 自強小學

- 1913년 광둥 출신의 화상 周瑞芝 설립
- 광둥 출신 자제들의 교육기관
- 사숙방식
- 1915 년 인천화교소학에 병합

### 3) 인천화교소학의 내분

- 金慶章 離任(1929) 이후, 2대 교장으로 王成鴻(安徽省 출신, 중화상무총회 부회장)이 취임 → 남방과 북방의 충돌 시작

### 4) 인천화교소학과 魯僑華僑小學

- 인천화교소학 → 소수의 남방 중심/기존 학교명과 校舍 사용
- 魯僑華僑小學 → 다수의 북방(산둥) 중심/산동회관 내 설치

### 5) 교세의 역전

- 분리 초기, 인천화교소학(100여명)/노교화교소학(30여명) → 1931년 노교화교소학(200여명)

- 인천 거주 화교들의 출신지별 인적구성의 변화와 경제적 주도권의 교체가 중요 원인
- 남방중심 → 북방중심

## 6) 양 校의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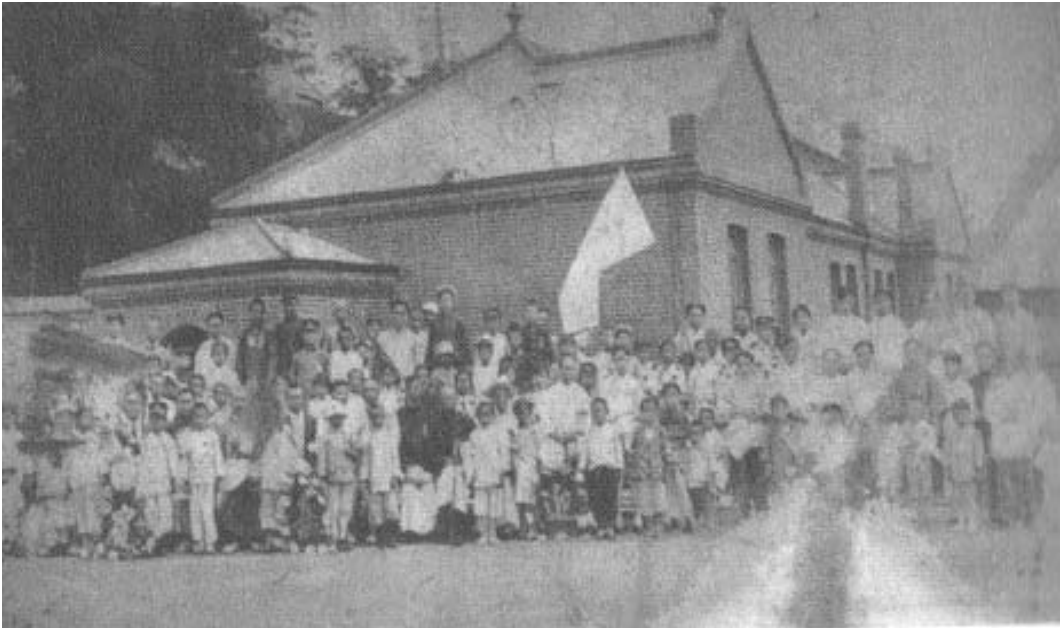
- 1934년, 화교사회의 화합과 단합을 바랐던 仁川辦事處의 중재로 병합
- 사실상, 노교화교소학으로 통폐합

## 5. 董事會 발족

- 화교사회 단합과 화교학교를 둘러싼 반복적 분란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경비에 대한 화교의 적극적 부담
- 남방, 북방, 광방의 대표들을 소집 ‘校董團’ 조직
- 최초의 이사회 조직
- 주요업무 : 학교운영 관련 일체의 사무를 지휘, 감독, 학교 예산 및 결산 심의, 자금모집
- 이사회는 孫景三, 郭華亭(북방), 譚廷澤(광방), 王成鴻(남방) 등 거대 무역상 중심으로 구성

## 6. 근대적 교육체제 정립

- 學制 : 개교 당시 7년제(初小 4년, 高小 3년) → 1923년 가을학기부터 6년제(중화민국규정학제)
- 校舍 신축



- 기숙사 구비 → 학생수 급증의 커다란 이유
- 행정조직 완비
- 교재 : 上海商務印書館, 中華大書局, 世界書局 등에서 간행하는 蔣介石  
南京國民政府 教育部教科書局 검정 교과서
- 남녀공학제 (1930년대 초반, 女兒 입학 전무)
- 교원 : 중국에서 초빙



## 7. 조선총독부와 화교학교

### 1) 萬寶山事件

- 1931년 7월 1일 중국 長春에서 발생
- 7월 3일 인천에서 최초로 화교습격사건 발생 → 전국으로 확대



- 조선일보 오보에 따른 조선인의 화교 대상 집단폭력 행사
  - 화교사회의 막대한 경제적 인적 피해
  - 화교들의 대거 중국 귀환
  - 심리적 충격
- ⇒ 폐쇄적 내부결속, 화교사회의 고립화 심화

## 2) 조선총독부의 화교학교에 대한 取締

- 화교소학을 反日교육의 온상으로 지목
- 교과서 압수, 교원 구금
- 중국으로부터의 교과서 수입금지 조치
- 화교소학의 설립(등록제 → 허가제)
- 일본어교육 강화(주당 5시간)

## 3) 친일협력정권과 화교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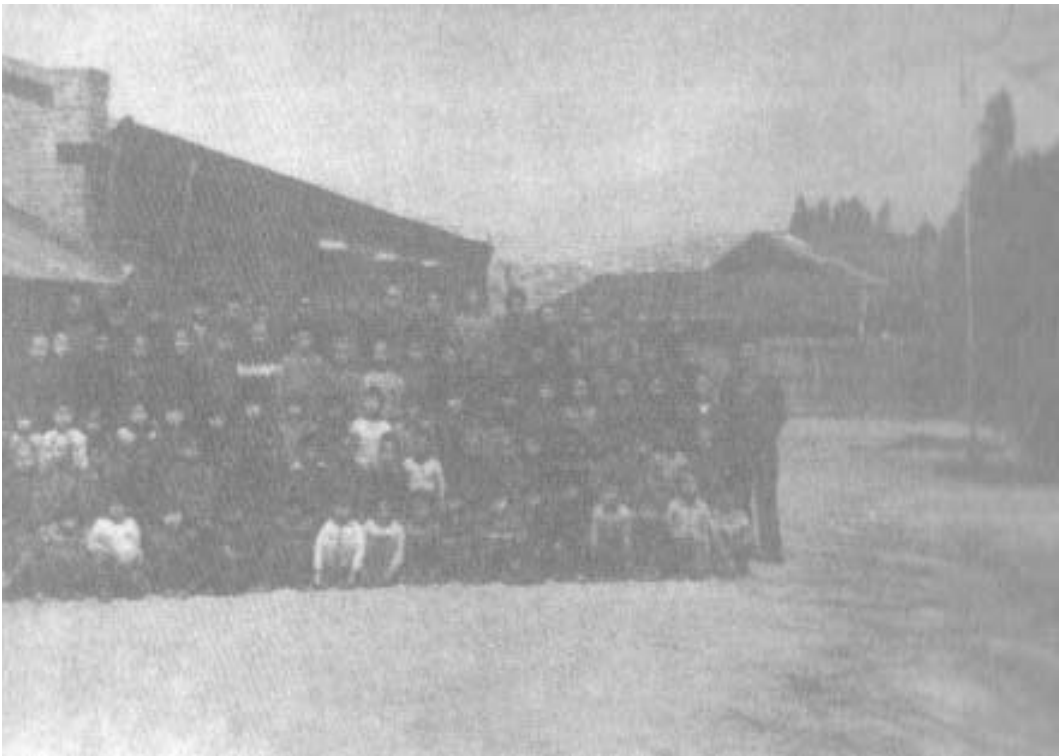
- 친일협력정권(중화민국임시정부 → 汪精衛정권)
  - 蔣介石 국민정부의 통치체계 일소/자신들의 통치이념 구현 위해 교육 개혁
  - 화교학교 종사자의 인적교체와 행정조직 장악
  - 반일/친국민당 교원 → 친일/반국민당 교원
  - 새로 충원된 교원(만주출신 혹은 조선 출신)
  - 동사회 장악
  - 일본인 교사들의 행정적 간섭
- ⇒ 화교는 소극적 객체로 전락

## 4) 화교학교에 대한 적극적 지원

- 역대 정권 중 가장 적극적 지원
  - 화교학교의 급격한 증가(중학 1교 포함 총 26개)
  -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 지급
  - 교원 및 교직원 처우 개선
  - 校舍 증축(교실 부족 해결)
- ⇒ 해방 이후 화교교육 발전의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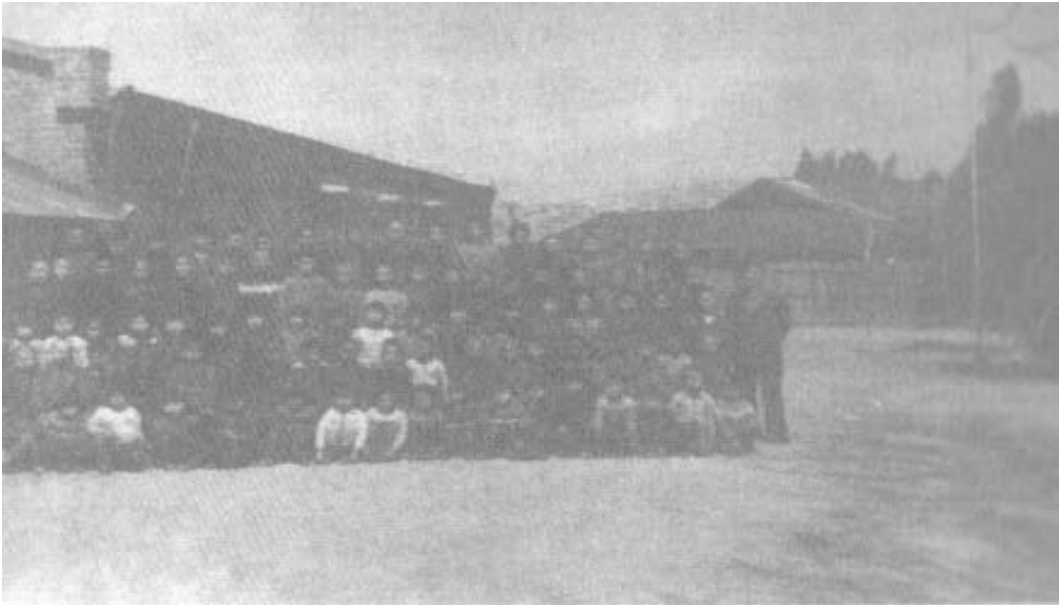
## 5) 주안분교(1946년)

- 인천화교 가운데 주로 華農 자제
- 석바위(300평 규모)
- 주안개발
- 1976년 폐교



## 6) 용현분교(1951년)

- 한국전쟁 중 개교
- 인천화교소학 대체
- 1987년 폐교



## 7) 부평분교(1951년)

- 본교와의 遠거리
- 1986년 폐교



## 8) 화교학교의 쇠락

- 화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별
- 화교 再移民 → 화교 수 급감
- 학생 수 감소
- 仁川華僑小學 + 仁川華僑中山中學
- 한국인 학생 입학 → 학교운영에 절대적



## 9) Bilingual인가? 아니면 언어장애인가?

- 교육체계 및 커리큘럼의 비합리성
- 과거 타이완 교육체계 답습(교과서, 繁體 등)
- 언어적 혼란
- 가정(산동방언), 학교(중국어), 사회(한국어)
- 어설픈 중국어, 뜬문뜬문 한국어
- 학교교육과 현실생활의 괴리
- 정체성의 혼란



# 인천화교의 한해살이

황 금 희

(목포대학교)





# 인천화교의 한해살이

##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인천 차이나타운 화교들의 한해살이
3. 전통세시풍속의 중국 영성지역과 한국  
인천지역 전승현황 비교
4.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필자의 강의가 제일 마지막에 배치된 까닭에 지금까지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인천화교에 관한 역사와 지식이 충분히 쌓이고도 남았으리라고 여겨진다. 그리하여 강의에 앞서 ‘화교’라는 주제를 어떻게 갈무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왜 화교의 전통세시풍속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살펴보고자 하는가? 등과 같은 의문을 스스로 품게 되었다.

세시풍속이란 음력 정월부터 설날까지 같은 시기에 반복되는 주기적으로 전승되는 의례를 일컫는다. 전통 세시풍속은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고정된 것으로 한 민족·집단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

화교와 같이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집단의 경우 자국의 환경을 기반으로 한 자연적인 발전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급격한 역사의 흐름과 이국(異國)의 환경에서도 전통의 전승과 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롭게 발전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민속을 주목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고정관념으로 보아왔던 중국의 문화와 중국인에 관한 편협한 시각을 조금이나마 넓혀보고자 한다.

백과사전에 나오는 박제된 개념이 아닌, 삶과 일상이 충돌하는 살아 숨 쉬는

현장에서, 지속되면서 변화되고 또한 발전하고 성장하는, 문화현상 자체뿐만이 아닌, 생산자이자 매개자이며 향유자이기도 한 사람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른바 다문화사회라는 것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문화도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필요하다. 오늘날 대중매체를 통해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화가 소개됨으로써 수많은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상호 교류하고 의미를 공유하기에는 다소 일방적인 느낌이다. 상대방과 소통하고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개인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

우리 사회에서 시간적으로도 가장 오래되고, 물리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거리에 이웃으로 존재한, 그러나 심리적으로 너무도 멀리 밀어내버린 화교들의 삶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줄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한걸음 더 다가가 보자.

세시풍속은 대개 일 년 주기로 반복되기 때문에 연중행사라고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한해살이라는 용어를 써서 화교들의 삶에 좀 더 친근하고 살갑게 다가가 보고자 한다.

다음의 내용은 박사학위논문<sup>1)</sup>을 위해 2006년에 진행된 필자의 현지조사 자료와 2011년에 조사된 민속박물관의 도시민속조사보고서<sup>2)</sup> 내용을 함께 간추려 정리하였으므로 각 부분마다 따로 원전을 일일이 밝히지는 않았다.

## 2. 인천 차이나타운 화교들의 한해살이

음력 정월 초하루를 ‘過年’ 혹은 ‘過大年’이라고 부른다. 명절을 통해 가족의 유대감을 다지고 정을 나누게 된다. 설은 화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전통명절이다. 설 쇠기는 대체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작은설 쇠기(過小年)로 시작하는 설 준비부터, 설 차례, 보름 성묘까지의 명절의 연속이 그것이다.

1) 黃今姬, 『祖籍地民俗與華僑群體的認同』, 北京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년

2) 강경표·안일국, 『도시민속조사보고서09 민속지 인천차이나타운 淸館淸관』, 2012년

## 1) 작은설 쇄기(過小年)

음력 12월 23일을 ‘작은설(小年)’이라고 한다. 이날 저녁에 재물을 관장하고 부역을 지켜주는 조왕(竈王)에게 제사를 지낸다. 조왕을 잘 모셔야지만 한 해 동안 무탈하게 잘 보낼 수 있다고 여긴다.

조왕은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자신이 1년 동안 머물고 있던 집안의 대소사(大小事)를 옥황상제에게 상세히 고해바친다고 한다. 그래서 조왕이 옥황상제에게 좋은 말만 해달라는 의미로 작은설 저녁에 조왕을 위한 제사를 각별히 모신다.

조왕은 부역의 부뚜막을 관장하는 가신(家神)으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화교들에게 조왕신은 매우 중요하다. 식당을 운영하는 장덕영<sup>3)</sup>은 부엌 한쪽 벽에 제단을 마련해 두고 조왕도를 붙여 놓았는데, 이 그림은 매년 세화로 구입한다. 그림에는 남성인 조왕을 중심으로 양쪽에 두 명의 여성이 있는데 제보자는 이들을 조왕의 부인들이라고 했다. 또한 조왕이 그려진 세화의 양쪽 가장자리를 보면 붉은색 바탕 위에 검은색으로 ‘상천언호사(上天言好事)’, ‘하계강길상(下界降吉祥)’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이는 ‘하늘로 올라가서 좋은 말을 해 달라’, ‘땅으로 내려와서 좋은 행운을 달라’라는 뜻이다.

### (1) 제사상 차리기

장덕영은 조왕도(竈王圖)가 붙어 있는 아래 음식조리대 위에 붉은색의 천을 넓게 펼쳐서 단정하게 깔아 두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길상(吉祥)을 상징하는 붉은색 천을 사용하는 것이다. 붉은색 천을 음식조리대 위에 넓게 펼쳐 준비한 다음 미리 준비해 두었던 제사 음식을 차례대로 올렸다. 먼저 촛대와 향로를 준비한다. 조왕제사에 사용하는 촛대와 향로는 장덕영의 아버지 때부터 사용해온 것이다. 그래서 장덕영과 그의 가족들은 촛대와 향로를 집안의 가보로 여기며 간직하고 있다. 촛대 위에는 붉은색의 초를 켜는다.

제사상이 준비되면 먼저 과일, 사탕, 과자 순으로 재물을 진설한다. 과일을 먼저 진설하는데, 파인애플과 바나나를 각각 제단의 양쪽 가장자리에 올린다.

3) 張德榮, 남, 1959년생, 신포동에서 ‘신성루’라는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화교 3세대다. 그는 인천화교 협회의 간사를 역임하는 등 대내외적인 활동을 활발히 하는 화교 중 한 명이다. 그가 운영하는 ‘신성루’는 인천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강경표·안일국, 『도시민속조사보고서09 민속지 인천차이나타운 淸館淸館』, 2012년, 96-100쪽 참조

그리고 파인애플 바로 앞에는 오렌지, 바나나를 놓는다. 그리고 바나나 앞에는 사과를 놓고 딸기는 오렌지와 사과의 중간 정도에 진설하였다. 과일을 진설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제물 진설과 다른 점은 어떤 법도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다는 것이다. 단지 정성을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다른 또 한 가지는 과일을 꺾지 않는 것이다. 가끔 과일을 꺾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과일이 너무 크거나 또는 반듯하게 서지 않아서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

과일을 올린 다음에는 중국식 과자를 놓는다. 중국식 과자는 밀가루와 계란으로 반죽한 것을 기름에 튀긴 것을 말한다. 화교들의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기름에 튀긴 밀가루 과자인 이 중국식 과자다. 장덕영도 기름에 튀긴 과자를 제상에 올렸다. 그런데 중국식 과자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판매되는 일반 과자도 함께 올렸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과자는 중국식 과자와 사탕, 초콜릿 등 총 다섯 종류였다. 원래는 사탕뿐만 아니라 물, 사료용 콩, 여물을 바치기도 했다. 이것들은 조왕이 하늘에 오를 때 타고 가는 말을 위한 사료이다. 또한 제사를 지낼 때는 조왕 그림의 입에 엿을 녹여서 바르는데, 이는 입을 막아 옥황상제에게 나쁜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사탕뿐만 아니라 초콜릿과 엿도 진설하였는데, 초콜릿은 원보와 엽전 모양으로 생긴 것이며, 엿은 한국의 땅콩엿이었다. 그리고 맨 뒤에는 찻잔과 술잔, 젓가락을 각각 3개씩 준비해서 왼쪽부터 차례대로 올려둔다.

## (2) 제사 절차

제물 진설이 끝난 후 장덕영은 부인과 딸, 처남을 데리고 조왕도가 붙어 있는 제단으로 갔다. 먼저 찻잔과 술잔에 각각 차와 술을 따라둔다. 술은 고량주를, 차는 재스민 차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초를 준비한다. 초는 붉은색으로 된 것을 두 개 준비하여 촛대에 꽂고 불을 붙인다. 초에 불을 밝힌 다음 상위에 있던 붉은색 젓가락을 가지런하게 벽에 기대어 세워둔다. 젓가락을 세운 다음에 향 세 개에 불을 붙이고, 향로에 차례대로 꽂는다. 향을 향로에 꽂을 때는 가운데, 왼쪽, 오른쪽 순으로 꽂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향을 올린 다음에 준비해둔 지전(紙錢) 다발을 부채처럼 넓게 펼친 다음 촛불을 이용해서 불을 붙인다. 그리고 바닥에 준비해둔 넓은 스테인리스 그릇에 불이 붙은 지전을 놓고 태운다. 지전에 불을 붙인 다음 조왕의 그림이 붙어

있는 제단을 향해 엎드려서 절을 올린다. 무릎을 꿇은 채 상체를 들어 올렸다가 엎드리는 방식의 절을 세 번 반복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장덕영, 그의 부인, 딸, 현재 주방 일을 돕고 있는 처남 순으로 진행한다.

이 절차가 다 끝나면 남은 향을 지전과 함께 태우는 것으로 조왕제사가 끝이 난다.

조왕에게 바친 음식은 나중에 식구와 직원들끼리 나누어 먹는다. 향은 다음 날까지 다 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원칙인데, 장덕영은 화재를 염려하여 향을 끄기로 했다. 중국의 민간에서는 ‘남자는 달에 절하지 못하고, 여자는 조왕신에게 제사 드리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어 조왕에게는 남자만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그러나 장덕영 가족은 남녀 구분 없이 조왕에게 제를 올렸다.

## 2) 춘절(春節)

중국에서는 음력 1월 1일을 ‘춘절(春節)’이라고 부르며 습관적으로 ‘과년(過年)’ 혹은 과대년(過大年)이라고 한다. 춘절은 화교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다. 춘절 일주일 전부터 화교사회는 춘절 준비로 분주하다. 선달그믐날 자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춘절 제사가 치러지기 때문에 사실상 선달그믐부터 춘절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춘절을 보내는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인천의 화교들은 1세대들이 해 왔던 것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 (1) 대청소

작은설을 쇠고 난 다음 설맞이를 위해 집 안팎을 청소한다. 좋은 날짜를 선택하여 온 가족이 동원되어 청소를 한다. 중국음식점을 경영하는 한 화교의 말에 따르면 예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지나치게 청결하면 복이 달아난다고 여겨 자주 청소를 하지 않았고, 새해가 가까워지면 비로소 청소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식당이 더러우면 손님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를 하므로 설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은 없다고 한다. 다만 설맞이의 상징적인 의미로 대청소가 남아있다.

### (2) 설 차례상 준비

춘절 차례 상에 올라가는 제물은 향, 과일, 튀김, 빵, 과자, 차(茶), 술이다.

과일은 사과, 귤, 오렌지, 파인애플, 배를 준비한다. 과일을 진설할 때는 홀수로 올리기 때문에 세 개나 다섯 개를 제기에 쌓는다. 하지만 천신제사와 조상제사를 같이 지내기 때문에 필요한 과일의 양이 많다. 그래서 과일은 종류별로 박스째 준비한다. 튀김은 닭튀김, 고기완자 튀김, 조기 튀김, 족발 등의 육류와 어류튀김을 준비한다. 빵은 ‘보보(饅饅)’를 준비한다. 보보는 중국 산둥성을 대표하는 명절음식으로 조상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올라가는 제물 중 하나이다. 그리고 과자는 반드시 다섯 종류를 갖춰야 한다.

이외에도 지전(紙錢)과 원보(元寶)를 준비해야 한다. 지전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노란색 종이로 황지(黃紙)이며, 다른 하나는 외국돈 모양인 양전지(洋錢紙)이다. 원보는 화폐인데 금색과 은색으로 준비한다. 이런 것들은 인천 차이나타운 내에 화교들이 운영하는 잡화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대만이나 중국에서 직접 사오기도 한다. 지전과 원보는 모두 제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태운다.

### (3) 제사 음식 만들기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춘절을 기준으로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전부터 제사음식을 준비한다. 반면에 인천 차이나타운의 화교들은 대체로 음식점을 경영하거나 관계된 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음식을 만들어둔다.

중국음식점 주방장 출신인 손덕준<sup>4)</sup>은 직접 제사음식을 만들었다.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음식을 만드는 것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와 달리 화교들은 남자가 음식준비를 하기도 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남편이 부엌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동안 부인은 카운터를 지키며 세뱃돈을 준비하고, 제사용 제기(祭器)를 준비하거나 제사음식을 제상(祭床)에 진설하는 것을 담당했다.

손덕준은 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대만불교 일관도식 제사음식을 준비했고, 함께 일을 하는 셋째 여동생의 제사음식도 함께 만들어주었으며, 설에도 중국의 고향집으로 갈 수 없는 직원들을 위해서도 따로 제사음식을 준비해주었다. 화교들의 설음식은 한국보다는 가짓수가 많지 않았고 조리과정이 번거롭지는 않았으나 정성껏 준비하였으며, 조리된 음식 위에 시금치와 대추를 곁들여 장식하는 등 장식을 하였다.

4) 손덕준, 남, 1956년생, 인천화교 3세대.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음식점 ‘태화원’, ‘중화루’, ‘자금성’을 경영, 부친은 중국 산둥성 연태지역 출신. 위의 보고서 101- 121쪽 참조

#### (4) 물만두(水餃)

한국인들이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듯이 화교들은 춘절이 되면 물만두를 먹는다. 이는 중국음식점에서 파는 크기가 작은 물만두가 아니라 보통크기의 교자만두를 물에 삶아 건진 것을 말한다. 또 춘절용 물만두가 다른 명절이나 잔치를 치를 때 빚는 만두와 다른 점은 만두를 빚을 때 대추, 땅콩, 동전 등을 따로 준비해 만두소에 함께 넣는다는 것이다. 무작위로 선정해서 넣는 이유는 어떤 만두에 돈, 대추, 땅콩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두 속에 넣는 동전과 대추, 땅콩은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화교들은 설날 그믐날 천신제사, 조상제사를 다 끝내고 가족들과 함께 물만두를 나누어 먹는다. 이 때 가족 중 누군가가 동전이 든 물만두를 먹으면 그 해에 재물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대추가 들어있는 물만두를 먹게 되면, 대추가 달고 맛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재물과 복이 많이 들어온다는 뜻으로 여긴다. 땅콩이 들어있는 물만두를 먹으면 자손을 많이 번창시킨다는 뜻이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물만두를 먹다가 누군가의 만두 속에서 동전, 대추, 땅콩 중 하나가 나오면 모두가 진심으로 함께 축하해준다. 또 어떤 때는 어른이 세뱃돈을 따로 더 주기도 한다.

밤 8시가 넘어서 손덕준 가족과 직원들이 가게 주방 안에 모여서 만두를 빚었다.

#### (5) 보보(饅饅)

중국 산둥성의 대표적인 찐빵이 보보(饅饅)이다. 설에 조상에게 제를 지낼 때 쓰는 음식으로 찐빵 위에 대추를 박아 장식하기 때문에 ‘대추보보(棗饅饅)’라고 부르는데, 보보는 산둥인의 상징적인 음식이다. 보보는 크기도 일반 찐빵과 달리 지름이 30cm, 높이가 18cm 정도로 크며, 인천 화교의 경우 지역에 따라 대추를 장식하는 방식도 다르다. 영성, 문등 사람들은 Y자 형태로 10개의 대추를 박고, 연태와 모평, 복산 지역의 사람들은 十형태로 13개의 대추를 박는다. 산둥성 기타지역 사람들은 원형으로 또는 별 모양으로 만든다. 바닷가 어부들은 물고기, 새우, 게, 조개, 꽃 등의 실물과 유사한 장식을 넣기도 했다고 한다.

## (6) 지전과 원보 준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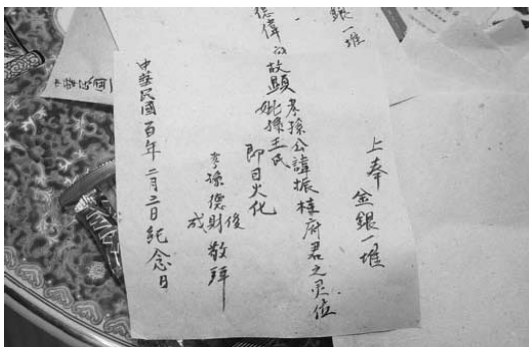
조상제사가 끝나면 집 밖에서 남자들이 적당한 공간을 확보한 뒤에 지전, 원보, 향을 태운다. 지전, 원보, 향을 태우면 조상님들에게 노жат돈을 드리는 것과 같아 복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원래 원보는 집에서 직접 종이를 접어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하지만 요즘에는 중국물건을 판매하는 잡화점에 가서 구매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잡화점에는 다양한 원보들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중국이나 대만에 가서 직접 사오기도 한다.

종이돈과 원보를 만들 때에는 금기사항이 있다. 가게에서 판매되는 원보는 접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보를 입체적인 모양으로 부풀리기 위해서 입김을 불면 쉽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화교들은 입김을 불지 않는다. 원보를 만들 때는 입김을 불면 안 된다는 금기가 있다. 납작한 상태로 들어온 원보를 불어서 펼치면 재물이 날아간다고 믿는다. 이러한 원보는 금색과 은색 두 가지로 준비한다. 지전과 원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 (7) 조상에게 드리는 편지

옛 방식으로 조상제사를 지낼 때 노란색 지전에 편지를 써서 제를 지낸 후 태운다. 인천 차이나타운 화교들 중에서 조상에게 드리는 편지를 작성할 줄 아는 사람은 몇 안 남았다고 한다. 손덕준의 모친 왕영신은 시조부, 시아버지 그리고 2010년에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잃어버린 둘째 아들 손덕위를 위해 지전에 편지를 썼다. 지전에 작성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은 한 꾸러미를 조상님들께 바칩니다.  
손진계 할아버지에게도 드리고,  
손덕준의 할머니 왕씨에게도 드립니다.  
손덕준과 형제(덕재, 덕성)들이 공손히  
절을 올립니다.

중화민국 100년 2월 3일

<사진> 조상제사에 사용할 지전에 작성된  
왕영신의 편지



### (8) 설 제사

산동지역 화교들의 제사절차는 대체로 신(天神)제사 - 조왕(竈王)제사 - 재신(財神)제사 - 조상(祖上)제사 순이다.

손덕준의 사촌동생인 손덕홍과 셋째 동생인 손덕제가 제물을 진설했다. 김영애가 준비한 제물을 공손히 들어서 손덕제에게 주면, 손덕제는 그 제물을 받아 제상에 가지런히 진설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물만두는 그릇에 세 개씩 담아서 제일 뒷 열에 진설한 다음 붉은색 젓가락 한 쌍을 물만두가 담겨진 그릇 위에 가지런하게 올린다. 젓가락을 올리고 물만두 앞 열에 사과, 오렌지를 차례대로 올린다. 그 다음 두부튀김, 버섯튀김, 완자튀김의 순으로 진설한다. 상이 좁기 때문에 따로 상을 준비하여 앞에 차린다. 튀김이 올라가면 보보찐빵을 제사상 양쪽 끝에 가지런하게 진설한다.

제물의 진설이 완료되면 남성 가족 구성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향을 올린다. 장남인 손덕준이 제일 연장자로, 먼저 진향하는데 향 세 개에 불을 붙인 다음 흔들어서 꺼트리니, 신주를 향해 예를 갖추었다. 그리고는 세 개의 향을 차례대로 향로에 꽂았다. 향을 향로에 꽂을 때에도 순서가 있다. 먼저 향로 가운데에 하나를 꽂은 다음, 오른쪽, 왼쪽 순으로 꽂는다. 향로에 향을 다 꽂은 뒤에는 한 발 물러서서 신주를 향해 절을 한다. 절은 엎드려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는데, 손덕준은 서서 절을 했다. 원래는 남자는 세 번, 여자는 네 번 절을 올려야 한다고 하지만 몇 번 절을 하는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손덕준이 향을 올리고 절을 한 다음부터는 새로 향을 올리지 않고 절만 한다. 순서는 셋째 동생, 사촌 동생, 막내 동생, 손덕준의 아들, 셋째 동생의 아들 순이다. 그 다음으로 여성들이 절을 하는데,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항렬 순으로 절을 한다. 손덕준의 어머니인 왕연신이 먼저 절을 네 번 한다. 다음으로 손덕준의 부인인 김영애가 절을 하고, 첫째 동서인 이순옥, 둘째 동서인 두미령, 둘째 딸인 손만평, 며느리 순으로 절을 한다.

### (9) 가족모임

조상제사가 끝나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설음식을 먹으며 새해 인사와 덕담을 주고받는다. 화교들은 춘절에 가족들끼리 먹어야 복을 다 받는다고 여겨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것을 기피한다. 그 이유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복이 다른 집으로 나간다고 믿기 때문이며, 또한 다음날 아침까지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는데 이 또한 사람을 통해 집안의 복이 밖으로 나갈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외부인이 화교들의 설 쇠는 풍습을 직접 조사하기란 쉽지 않다.

화교들은 설달그믐부터 다음날 설 아침까지 밤을 새며 잠을 자지 않는 수세(守歲)를 한다. 설을 누구보다도 먼저 맞이해야 복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또한 설달그믐날 미혼녀는 절대로 남의 집에 가지 않는데, 그 이유는 남의 집에 가게 되면 다음 해에 자신에게 올 복을 그 집에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 (10) 세뱃돈(壓歲錢) 준비

춘절에 가족과 친척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 홍빠오[紅包, 붉은봉투]에 야쭈이첸[壓歲錢, 세뱃돈]을 넣어서 준비한다. 춘절 전에 은행에서 찾은 뽀뽀한 새 지폐를 붉은색 봉투에 넣어서 세뱃돈을 준비하는데, 붉은색의 봉투를 쓰는 것은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흰색 봉투는 장례식에 사용하는 색깔이라 사용하지 않는다.

손덕준은 2011년 새해 춘절에 중국의 고향에 가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세뱃돈을 나누어 주면서 ‘공희발재(恭喜發財)’라는 중국식 새해인사를 했다. 중국에는 전통적으로 새해가 되면 만나는 사람에게 ‘공희발재’라고 하면서 덕담을 주고받는데, 이는 한국식으로 ‘부자 되세요’라는 뜻이다.

#### (11) 의선당 단체세배(團拜)

춘절 오전에는 차이나타운 내의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쉬며 가족들과 함께 보낸다. 장사를 하는 곳도 더러 있긴 하지만 설날 장사를 하는 곳은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뿐이다.

매년 설날 아침이면 차이나타운의 화교 대표들은 의선당에 모여 단체세배(團拜)를 함으로써 공식 새해인사를 나눈다. 모든 가정에서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화교협회 관계자들과 신도들이 대부분이다.

2011년 오전 10시가 되자, 인천 화교협회 외무 부회장인 유천해가 의선당 마당과 경로당에서 덕담을 주고받는 화교협회 관계자들에게 의선당 제사가 있

음을 알렸다. 손덕준을 비롯한 화교협회 관계자들이 하나 둘씩 의선당 안으로 들어섰다. 화교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의선당에 제사를 올릴 준비를 했다. 제단에는 미리 준비된 촛대와 향로, 과일, 보보 빵이 차려져 있다.

의선당 내부로 들어서면 인천 화교협회 관계자들이 각자 자리에 위치한다. 의선당의 다섯 개 제단 중 가운데 미륵을 모시는 제단 앞에는 현 인천 화교협회장인 진영찬이 자리하였다. 그리고 양 옆으로 전 중산학교 이사장, 현 중산학교 이사장의 순으로 자리하며, 손덕준은 호삼태야라고 불리는 산신을 모시는 제단 앞에 섰다.

의선당 안에 모셔진 신들은 격(格)과 신력(神力)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를 지내기 위해 자리를 선정할 때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 순으로 자리를 배정했으나, 지금은 인천 화교협회 관계자들의 직책을 우선시하여 자리를 배정한다고 한다.

인천 화교협회 관계자들 및 주민들이 의선당에 예를 갖추고 각자의 위치에 자리하면, 외무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유천해가 의선당에 모셔진 다섯 신들에게 제를 올린다는 것을 고하고, ‘진향(進香)’이라고 크게 외친다. 진향은 향에 불을 붙인 다음 향로에 꽂으라는 뜻이다. 유천해의 말에 따라서 각 제단 앞에 자리하고 있던 다섯 명의 인천화교협회 임원들은 향 세 개를 집어 든 다음 불을 붙여 향로에 차례대로 꽂았다. 향을 꽂을 때는 한 줄로 나란히 꽂아야 한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꽂고 나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향로 앞에는 미리 준비된 술과 차가 각각 세 잔씩 놓여 있다. 화교들은 제를 지낼 때, 기본적으로 술과 차를 세 개씩 마련한다.

다섯 명이 제단에 향을 올리고 나자 유천해가 ‘진차(進茶)’라고 큰소리로 알렸다. 유천해의 구령에 맞추어 임원들은 제단에 진설된 술잔을 하나씩 들어 제단 바로 앞에 차례대로 뿌리면서 술잔을 비웠다. 향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잔을 비우는 데도 순서가 있다. 먼저 가운데 잔을 비우고, 이후에 오른쪽 잔, 왼쪽 잔 순으로 술을 비운다. 전 학교 이사장은 술을 비우기 전에 술잔을 향위에 세 바퀴 돌렸는데, 이는 한국의 제례문화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유천해가 “大家都准(모두 준비하세요!), 一列(한 줄로 서세요.) 老位, 拜年(앞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拜一三倍(세 번 절하세요.)”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유천해의 구령에 따라서 제단 앞에 선 다섯 명은 사

당에 모셔져 있는 신에게 세 번씩 절을 하는데, 절을 할 때마다 유천해는 종을 친다. 유천해는 종을 한 번씩 치면서 “一鼓(종 한 번)”, “一鼓(다시 한 번)”, “一鼓(다시 한 번)”라고 외친다. 다섯 명은 그 종소리에 맞춰서 다섯 신선에게 절을 올렸다. 서서 절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화교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의선당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유천해의 말에 따라 똑같이 절을 한다. 밖에서는 엎드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서 허리를 세 번 숙이는 절을 한다. 의선당에서 제사가 끝난 다음 화교협회 관계자들은 서로 새해 인사를 주고받았다. 인사를 주고받은 뒤에는 모두 경로당에 모여 간단한 음식을 나누며 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 (12) 친척 방문

설연휴 기간에는 각지에 흩어져 살던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고, 친척끼리 방문을 하며 새해인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손덕준 부자는 의선당에서의 제사가 끝나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도 화교들을 만나면 새해 덕담을 나누었다. 태화원에 도착했을 때 손덕준의 조카가 곧 혼례를 올릴 예비신부를 데려와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시켰다. 둘째 여동생과 사위가 먼저 왕연신에게 새해 인사를 드린 다음, 조카와 예비 신부가 새해 인사를 드렸다. 왕연신은 새해 인사를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손덕준의 권유로 절을 받았다. 왕연신은 가슴에 숨겨두었던 세뱃돈을 꺼내어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화교들은 새해 인사라고 해서 한국인들처럼 반드시 엎드려 절하지는 않는다. 간단한 목례와 새해 덕담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격식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 3) 원소절(元宵節)

음력 1월 15일을 ‘등불의 날(燈節)’ 혹은 ‘원소절(元宵節)’이라고 부른다. 정월이 ‘원월(元月)’이며 달이 뜨는 저녁을 ‘소(宵)’라고 하는 데서 나온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정월대보름에 해당된다. 원소절에 중국 사람들은 등을 켜고 그 등불을 구경하면서 설탕과 호두, 밤, 땅콩 등으로 만든 소를 넣어 찹쌀가루로

조그맣고 동그랗게 빛은 새알심 원소를 삶아 먹는데 향기롭고 달콤한 맛이 난다. 이 새알을 원소절에 먹는 음식이라고 ‘원소(元宵)’ 또는 둥근 모양이라고 ‘단원(團圓)’이라고 한다. 만사가 원만하기를 바라는 중국 사람들은 일 년 중 첫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둥근 원소를 먹으면서 가족들이 다시 모일 것과 화목, 행복, 만사형통하기를 기원한다.

### (1) 음식 준비하기

원소절이라고 해서 많은 음식을 장만하지는 않는다. 춘절에 조상제사상에 올렸던 제물을 원소절까지 계속 바꿔가며 올려주기 때문에 굳이 원소절에 새롭게 음식을 장만할 필요가 없다. 노상영<sup>5)</sup>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만 새롭게 준비하고, 나머지는 집에 있는 재료로 마련하였다.

원소와 단원은 중국말로 ‘웬쇼우’, ‘탕웬’이라고 불리는데, 우리의 찹쌀떡과 비슷하다. 단원 속에는 여러 가지 소가 들어 있다.

새알심은 ‘탕원(湯圓)’, ‘원자(圓子)’라고도 한다. 먼저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작은 크기로 떼어낸 후 그 안에 소를 넣기도 하고 넣지 않기도 한다. 소는 설탕, 팥, 땅콩 등이 쓰이며 삶거나 볶거나 찐다. 새해의 첫 보름날 새알심을 먹는 것은 가족의 화목, 행복 그리고 원만한 삶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원소와 함께 큰 향과 작은 향, 초, 지전, 양전지를 준비한다.

### (2) 원소절 제사

원소절의 제사 상차림은 춘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춘절의 물만두 대신 찹쌀 경단을 올린다. 진설이 다 되면 노상영은 제사 지낼 준비를 한다. 먼저 대만에서 구입한 큰 향에 불을 붙인다. 향이 꺼지면 계속 향을 피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큰 향은 한번 태워 두면 24시간을 타기 때문에 향을 바꿀 필요가 없다. 향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에는 향로에 왼쪽, 오른쪽, 가운데 순으로 꽂는다. 향을 꽂은 다음에 서서 손을 마주잡고 두 번 돌리는데, 이것은 망자(亡者)에 대한 간단한 예를 차리는 것이다. 원소절 제사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제단을 차리고 제물과 향을 올리면 끝난다. 제단 앞에 잔을 세

5) 盧常榮, 남, 1958년생, 인천화교 3세. 인천 화교협회 간사. 제물포에 중국음식점 개업 준비 중이다. 부친 중국 산둥성 영성출신. 모친 한국인.

개 놓아둔다. 작은 잔 세 개에는 술이 담겨 있는데, 절을 드리기 전에 제단 앞에 술을 뿌리는 용도로 사용한다. 중국어로 ‘敎祖(교조)’라고 하며 향을 쬔을 때처럼 왼쪽, 오른쪽, 가운데 순으로 잔을 비운다.

### (3) 성묘(送燈, 등불 보내기)

화교들도 청명 즈음에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지전을 태운다. 우리와 다른 점은 봉분 위에 노란 종이를 올려놓았다가 태우는데, 이것은 조상들이 입었던 겨울옷을 벗는다는 뜻이다. 술과 음식을 올리고 지전을 태우는 것 이외에 묘지에 등불을 밝히는 것이 주된 활동인데, 당근토막의 속을 파내어 만든 옛날 방식의 등불부터, 붉은색 양초, 건전지를 넣은 손전등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제사를 마치고 노상영은 부평의 화교 공동묘지로 향했다. 원소절 성묘는 대개 남자들만 따로 간다. 여자들은 음식만 장만할 뿐 성묘를 가지 않는다. 다만 맞벌이 부부는 가끔 성묘를 함께 가서 음식을 차리기도 하며 노상영의 어머니도 노상영을 따라서 성묘를 가기도 한다. 묘지에 도착하자 지전을 한 뭉치 꺼내서 불을 붙인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묘지 앞에 있는 화덕에 넣어 둔다. 원래는 화덕이 없었는데 지전을 태우다가 겨울에 바람에 날려 산불이 더러 나는 바람에 인천시에서 화교들의 묘지 앞에는 반드시 화덕을 만들게 했다고 한다. 그래서 화교들의 묘지 앞에는 자그마한 화덕이 하나씩 있다.

노상영은 화덕에 지전을 태운 다음 가져온 초에 불을 밝힌다. 파인애플 모양의 초에 불을 붙인 후에 묘지를 한 바퀴 돈다. 아버지의 묘 주위를 초로 밝히면서 도는 것은 춘절 전날에 모셔온 조상을 원소절에 좋은 곳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의미다. 그리고 초를 묘 앞에 있는 작은 혼 구멍에 넣어 둔다.

봉분 앞에는 벽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죽은 영혼이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의 역할을 한 것이다. 벽에 두 개의 구멍이 있는데, 우리 위패의 혼 구멍과 같은 역할을 한다. 특히 원소절에는 등불을 밝혀서 묘지 앞에 난 구멍 속에 넣어두는데 이는 춘절 때 모셔온 망자의 넋이 저승으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혼이 오고 가는 길에 등불을 밝힌다는 의미이다.

노상영은 초를 혼 구멍에 넣은 다음 큰 향을 세 개 들고 지전이 타고 있는 화덕에 가서 향에 불을 붙였다. 향에 연기가 솟아오르면 공손하게 양손으로

향을 잡고 상석 앞에 섰다. 상석 앞에서 향을 세 번 크게 위 아래로 흔든다. 그리고 상석 앞에 마련되어 있는 향로에 차례대로 꽂아 뒀다. 그는 원소절 성묘를 위해 별도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 출신의 화교들의 경우 원소절에 음식을 장만해서 차리는 이들도 있다. 같은 산동성 출신이라도 성의 각 지역마다 성묘 지내는 방식이 다르다. 기독교 신자들은 절은 하지 않고 앉아서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

#### 4) 청명절(淸明節)

화교들은 청명절인 4월 5일 이외에도 7월 15일, 10월 1일 등에 성묘를 하는데 같은 산동지역 출신이라도 지역마다 성묘하는 날이 다르다. 인천 화교협회 간사를 맡고 있는 노상영은 청명절에 성묘를 한다. 이 날 그는 성묘를 가기 위해 말끔하게 차려입고 한 손에 따뜻한 재스민 차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향을 들고 나왔다. 노상영이 현관문에서 나온 뒤에 곧 바로 노상영의 동생과 아들, 어머니가 차례대로 내려왔다. 노상영의 동생은 성묘를 하기 위해서 멀리서 왔다. 가족들은 노상영의 차를 타고 부평 공동묘지로 향했다.

##### (1) 제물 차리기

노상영은 전날 준비한 제물을 박스에 담아 묘지 앞에 갖다 놓았다. 그는 아들인 노길주(盧吉洲, 남, 1988년 생)가 흔쾌히 성묘에 따라와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었다. 요즘 화교 아이들은 이런 성묘나 제사에 잘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성묘에 따라 와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다. 그가 사정이 생겨 성묘를 하지 못 할 때는 아들 혼자 성묘를 보내기도 한다.

어머니 김갑례(金甲禮, 여, 1935년 생)는 차에서 노란색 지전을 가지고 와 무덤 앞에 마련된 문 위 틈바구니에 끼워 뒀다. 그리고 무덤 주위를 돌아가면서 지전을 무덤 위에 가지런히 놓아뒀다.

지전을 무덤 위에 놓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저승 노잣돈의 개념으로, 망자가 저승으로 갈 때 노잣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성묘 이후에 오는 친지들에게 먼저 다녀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 (2) 청명절 성묘

화교의 성묘 상차림은 다음과 같다. 제일 뒷 열 좌측부터 차 세 잔을 나란히 올리고 우측에 삶은 만두를 올린다. 그리고 다시 우측부터 차를 세 잔 올린다. 다음 열에는 과자류가 올라간다. 화교들이 제사상에 올리는 과자는 종류가 정해져 있다. 노상영의 성묘 상차림을 보면 전통방식과 현대방식이 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좌측에는 중국의 전통 과자를 3개 올렸고, 우측에는 한국 과자를 올렸다. 그리고 청명절을 기리기 위해 노상영의 어머니가 동물 모양의 빵을 준비했다. 고슴도치와 토끼 모양으로 만들어진 빵인데 그 의미가 독특하다. 중국에서는 고슴도치가 신선으로 모셔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음 열에는 포도, 사과, 바나나, 딸기, 오렌지를 올려둔다. 화교들은 각 과일의 명칭에 의미를 부여하는 풍습이 있는데, 사과의 경우 ‘苹果’라고 해서 평화를 나타내는 ‘平和’와 발음상 비슷하다고 하여 제사상에 올린다.

다음 열에는 다섯 가지 튀김 음식을 올린다. 다섯 가지 튀김 음식은 손덕준의 춘절 제사상에서 소개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도미, 버섯, 완자, 닭으로 이 다섯 가지 재료를 이용한 튀김 요리는 제사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제물이다. 튀김 제물의 양쪽 가장자리에는 대추를 박은 산동식 보보를 올린다. 보보의 모양은 만두처럼 생겼으며, 맨 위에 칼로 세 등분하여 찌면 윗부분이 꽃봉오리처럼 열린다. 대추는 보보의 옆에 세로로 길게 쌍으로 붙인다. 보보는 상석의 맨 앞 열 양쪽으로 다섯 개를 층지어 켜는다. 이는 음양오행을 따르는 풍습이 있어, 홀수로 두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물을 차릴 때도 홀수로 차린다.

상석 위에 제물이 모두 마련되면 노상영은 나무젓가락 여섯 개를 차를 따른 잔 옆에 하나씩 놓아둔다. 그리고 술잔에 고량주를 따라서 세 잔 올린다. 술은 아무거나 사용해도 된다. 노상영의 어머니는 노상영이 상석에 진설을 하는 동안 노란 지전을 묘지 위에 가지런히 3열 3행(9장)으로 놓았다. 노상영은 남은 지전을 화덕에 넣고 태웠다.

어머니가 천천히 지전을 태우는 동안 노상영은 향에 불을 붙여 진향하고, 절을 세 번 올렸다. 이어 그의 아들이 엎드려 절을 세 번 했다.

그는 또 아버지 묘 바로 옆에 있는 친구 아버지의 묘에도 술잔을 올리고 지전을 화덕에 태웠다. 그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상석 위에 있는 제물을 치우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제물을 옮기는 동안 과일, 빵, 과자를 조금씩 칼로 베어다



가 묘지 옆에 모아뒀다. 마지막으로 술잔과 찻잔에 있던 술과 차를 묘지 한 편에 버리면 청명절 성묘는 끝이 난다. 제물은 집으로 가져와서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 5) 단오(端午)

### (1) 단오 음식, 쫄쪄[粽子]

중국인은 음력 5월 5일이 되면 찹쌀을 씻어 대나무 잎으로 싼 쫄쪄를 만드는데, 전국시대 초나라의 충신 굴원이 나라의 부패를 개혁하려다 간신의 모함으로 귀향을 가서 먹라강에 투신자살을 하였는데, 백성들이 그의 억울함과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서 물고기에게 이 사람을 잡아먹지 말라고 강물에 쫄쪄를 던져 준 것에서 유래된 풍습이라고 한다.

쫄쪄는 지역에 따라 모양도 각양각색이며 맛도 다양하다. 소만 보더라도 북방 지역은 대추를 많이 쓰는 반면, 남방 지역은 팔, 고기, 절인 고기, 계란 노른자 등을 사용한다. 산동성 출신이 대부분인 한국화교는 단팔과 대추가 든 쫄쪄를 주로 먹는다. 지금은 쫄쪄가 중국대륙에서 일상의 음식이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단오를 대표하는 세시 음식이다.

### (2) 대문에 쑥 다발 걸기(插艾)

단오에 중국인들은 쑥 다발을 만들어 문고리에 걸거나 건네주는 풍습이 있다. 먼저 쑥과 복숭아 나뭇가지를 꺾어 준비한 후 붉은 천으로 된 끈으로 예쁘게 매듭을 지어서 한 다발씩 만든다. 붉은 끈을 이용하는 것은 붉은색이 재물과 복을 주며 벽사의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단오는 절기상 계절이 바뀌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단오를 잘 보내야만 다가오는 장마철과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벽사와 길상을 상징하는 붉은색 끈으로 다발을 묶는 것이다.

그리고 쑥 다발에는 보리도 베어서 함께 넣었다. 하지만 40~50년 전 북성동과 선린동 일대가 넓은 농지였을 때에는 보리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쑥, 복숭아 나뭇가지와 함께 다발을 엮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보리를 쉽게 구할 수가 없어 쑥과 복숭아 나뭇가지로만 다발을 엮는다고 한다. 다 만들어진 쑥 다

발은 이웃집 문 앞에 걸어주거나 직접 건네준다. 보통 중국음식점 문 앞에는 사자 모양의 석고상이 한 쌍씩 서있는데, 사자상이 있는 집은 문고리에 걸지 않고 사자의 입안에 넣어두기도 한다.

### (3) 오색끈 매기(扎五線)

단오절의 주요 활동에는 벽사 축귀와 기복의 내용이 있는데, 20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아이에게 5색실을 엮어서 팔찌처럼 손목에 채워주거나 목에 걸어 준다. 예전에 위생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어린아이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오색줄(五索)’ 혹은 ‘장명루(長命縷)’라고도 부른다. 현재에도 일부 화교들에게서 이러한 풍습이 남아 있는데, 이 끈은 명절이 지나고 첫 번째 비 오는 날에 잘라서 흐르는 냇물에 버리면 1년 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었다. 어떤 화교는 5색이 아니라 7색실을 엮었다고도 말한다.

## 6) 칠월 백중(鬼節)

화교들에게 조상의 영혼은 귀신으로 두려운 존재이지만 일상생활의 일부분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친근한 존재로도 여긴다. 음력 7월은 귀신의 달이라고 하여 저승의 문이 열리고, 귀신들은 인간 세계에 내려와 한 달 동안 마음껏 누리며 평소에 자신들에게 소홀히 했던 후손들을 혼내준다고 여긴다. 이러한 이유로 후손들은 약간의 두려움과 경건함을 동시에 가지면서 귀신을 위한 행사를 한다.

각 가정에서는 귀신들이 집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대문에 등을 걸고, 그들을 위해 고기, 밥, 과자, 과일 등의 제물을 마련하여 제사를 지낸다. 영성과 문등출신의 화교들은 오전에 성묘를 간다. 조상들이 저세상에서도 풍족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승의 돈인 지전을 태우고, 행동도 근신한다. 이달에는 휘파람 불기, 약혼과 결혼, 이사, 개업 등을 삼가고, 귀신들이 물밑으로 잡아당긴다고 여겨 수영도 금한다.

7월 15일은 귀신 달의 절정이라고 여겨 제사를 지내고, 조상의 영혼이 밝은 곳으로 따라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등을 강물에 띄워 보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백중날 조상에게 과일을 천신하듯이 화교들도 수박, 참외 등은 통째로 올린다.

## 7) 중추절(仲秋節)

화교들은 음력 8월 15일을 ‘중추절’이라고 한다. 추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그들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쓰는 표현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추석이 설에 버금가는 중요한 명절인데 반해 중국인의 중추절은 그다지 큰 명절은 아닌 것 같다.

### (1) 달제사 지내기(祭月)

중추절은 가족과 함께 모이는 것 이상의 큰 의미는 없었다. 중추절은 일 년 중에 달이 가장 크고 밝게 뜨는 날로, 달을 기리는 작은 의식을 치르는데, 이를 ‘달제사’라고 한다. 그러나 인천 화교의 본적은 중국의 산둥성 지역 일대이고, 산둥성도 지역마다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인천의 화교라고 해서 모두 달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니다.

곡창신<sup>6)</sup>의 제보로 중추절 달제사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달제사의 상차림은 춘절과 원소절의 제사 상차림과 달리 매우 단출한 느낌을 주며, 진설된 제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맨 뒤 3열에는 좌측부터 파인애플, 참외 2개, 메론, 포도, 바나나를 진설하였다. 과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춘절, 원소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달제사에 사용되는 과일은 모두 곡창신의 어머니가 아침에 준비해둔 것으로 제물로 올라가는 과일마다 의미가 있다. 곡창신의 제보에서 알 수 있듯이 파인애플을 올리는 이유는 사업번창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다른 열대과일과 다르게 파인애플은 잎사귀가 많은 과일인데, 잎사귀가 많은 과일인 만큼 사업도 번창한다고 믿는 것이다. 또한 과육은 금색을 띄기 때문에 재화와 보물을 상징한다. 포도는 한 가지에 많은 포도 알맹이가 맺히기 때문에 자손번창으로 해석하여 제물로 사용한다. 바나나의 경우는 장수를 상징한다.

춘절, 원소절, 중추절 제사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과일이 사과다. 하지만 곡창신은 2011년 사과 값이 예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과를 준비하지 못했다. 일반 재래시장에서도 사과 2개에 5,000원이나 했으며, 마트에서는 한 팩에 12,000원이나 했다. 달제사는 여타 춘절과 원소절의 제사처럼

6) 曲昌信, 남, 1955년생,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음식점 ‘중국성(中國城)’을 운영하고 있다.

크게 지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사과를 마련하지 않았다.

제사상의 중간 2열에는 월병을 예쁘게 담아서 놓아둔다. 월병은 중추절에 만들어 먹던 중국의 전통 과자로,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중 하나이다. 월병은 중추절 달제사에 반드시 올렸던 음식이다. 곡창신은 인천 차이나타운 내에 있는 ‘중국제과 담’이라는 가게에서 월병을 구입해서 사용하였다. 월병의 가격은 월병 안에 어떤 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인 것은 2,000원이다. 한국 관광객들이나 화교 주민들이 선호하는 월병은 팔 앙금이 들어간 월병이다.

제상 제일 앞 열에는 향로가 놓여 있다. 곡창신의 집에 있는 향로는 역사가 오래된 향로로 곡창신의 윗대부터 사용해 오던 것이다. 향로 안에는 쌀이 한 가득 들어 있다.

제사상이 다 차려지면 곡창신은 제사 지낼 준비를 한다. 달제사는 치성을 드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간소하게 지낸다.

먼저 곡창신은 닫혀 있는 거실의 창문을 열어둔다. 본디 달제사는 집 앞마당이나 옥상처럼 달이 훤히 보이는 트인 장소에서 지내지만 현대의 주거공간에서는 그럴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실의 창가 쪽에 상을 차렸다. 더군다나 2011년 중추절에는 날이 흐려 보름달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곡창신은 거실의 창가에 달제사 상을 차려놓고 창문을 열어 달의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곡창신은 집에 늘 준비되어 있는 향통에서 향을 다섯 개 집어 들었다. 곡창신은 집에 재신(財神)을 향시 모셔두고, 초를 밝히고 향을 올린다. 그래서 향이 떨어지는 일은 없다. 홀수를 좋은 숫자로 여기기 때문에 향도 1개, 3개, 5개로 사용하는데 곡창신은 달제사를 지내는 만큼 향 다섯 개를 사용하였다.

향에 불을 붙인 다음 향로에 향을 차례대로 꽂는다. 그리고 조금 물러서서 엎드려 절을 세 번 올리고 잠시 합장을 한 채로 기다리며 달에게 소원을 빈다. 이렇게 해서 달제사는 모두 끝난다.

한국에서의 추석제사는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한 곡식을 조상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의미를 지닌다면, 화교의 달제사는 가족 모두가 한 해 동안 평안하고 건강하길 기원하는 의미가 더 크다. 달제사를 다른 말로 공양치성(供養熾盛)이라 하는 것도 그런 뜻에서인 것 같다. 또한 한국의

추석제사와 달리 상차림과 절차도 매우 간소하다.

곡창신이 지금까지 달제사를 지켜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중추절이 되면 달제사를 모셨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화교들은 달제사를 잘 챙기지 않는다. 물론 지역에 따른 편차도 있긴 하지만 제보자는 전통을 지키고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달제사의 풍습도 점점 약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 (2) 중추절의 절기음식, 월병(月餅)

월병은 음력 8월 15일에 둥근 달 모양으로 만드는 중국전통과자로, 달제사에도 쓰지만 무엇보다도 친척 및 가까운 이웃과 서로 나누어 먹는다. 월병은 밀가루에 라드, 설탕, 물엿, 달걀 등을 넣고 뜨거운 물로 반죽해서 껍질을 만들고, 안에 팔이나 말린 과일 등의 소를 넣은 다음 무늬를 새긴 둥근 나무틀에 끼워서 모양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표면에 광택을 내는 액(난황, 설탕, 캐러멜 등)을 바르고 굽는다. 월병은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인기 있는 관광상품 중 하나이다.

특히 인천 차이나타운에서는 직접 월병을 만드는 과자점이 네 곳이 있을 정도로 월병의 인기는 높다. 인천 차이나타운에서는 일 년 내내 월병을 판매하고 있지만 사실 전통적으로 월병은 중추절이 아니고서는 접하기 어려운 음식이었다고 한다.

월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덕이 필요하다. 하지만 1950~60년대 음식점 몇 곳을 제외하고는 살림살이 집에 화덕을 갖추고 있는 집은 드물었다. 그래서 월병을 일반 가정집에서 만들어 먹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청관거리에는 ‘풍미’와 ‘복래춘’ 두 곳의 중국제과점이 있었으며, 신포동에는 왕씨가 운영하던 중국제과점이 한 곳 있었다고 한다. 또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에도 중국과자를 만드는 제과점이 있었다. 중국제과점에서는 중추절을 전후로 해서 월병을 만들었는데, 그 수요를 전부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화교들은 월병을 먹는 풍습을 지금도 지켜오고 있다. 한국의 송편은 반달 모양의 찌르는 떡이지만 중국의 월병은 보름달 모양의 둥근 빵으로 구워서 만든다. 원형은 ‘화합’을 상징하며 집안 식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둥글게 모였으면 하는 염원을 나타낸다.

한국인 며느리를 얻은 가정에서는 한국식 송편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 8) 시월 초하루

화교들은 음력 10월 1일을 ‘성묘 가는 날’이라고 여긴다. 겨울이 되기 전에 조상의 묘지를 관리하고 성묘한다. ‘겨울옷 보내기(送寒衣)’ 또는 ‘하원절(下元節)’이라 하여 죽은 조상에게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옷의 의미로 노란 종이를 봉분 위에 올려놓았다가 불로 태우는데, 이때 저승 돈도 함께 태운다.

## 9) 기타

그 밖에 화교들의 한해살이에서 양력으로 지내는 중요한 절기로는 부녀절(3.8), 청년절(3.29), 아동절(4.4), 인천 중국의 날 문화축제(4.29~5.1), 화교학교 개교기념일(5.12), 화교학교 졸업식(6.25), 화교학교 입학식(8.20), 쌍십절(10.10), 화교의 날(10.21), 장개석 탄생기념일(10.31), 손문 탄생일(11.21) 등이 있다.

3. 전통세시풍속의 중국 영성지역과 한국 인천지역 전승현황 비교

음력	명칭	주요활동	절식	오락	금기	전승현황		비고
						중국대륙	한국인천	
12.23 (24)	小年 祭灶 辞灶	새로운 '灶马'를 붙이고, 부뚜막 청소를 함으로써 조왕신의 얼굴을 씻겨주는 의식을 한다. 수숫대로 말을 만들어 태우고, 제수를 정만하여 조왕제사를 지낸다.	米饭 饺子 酒菜 黏糕		조왕제사를 지낸 이후부터 설날까지는 모든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금기가 없음	조왕제사 물만두 먹기	작은 설 조왕제사 물만두 먹기	제사의 내용은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요식임에 중사하는 화교가 좀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
12.25- 12.29		대창소를 하고, 돼지를 잡고, 두부를 만들어, 보보를 찌는 등 제수를 장만한다. 남자들은 성묘를 다녀온다.	猪血 豆腐 豆浆 煮猪蹄		선달에는 이발을 하지 않는다	대창소 보보 찌기 제수 준비	대창소 대추보보 찌기 제수 준비 성묘	제사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화교들은 보보를 사서 사용하기도 함
12.30	年三十 除夕	춘연을 붙이고 제사상을 차린다. 저녁밥을 먹고 물만두를 빚는다. 문간에 복이 나기는 것을 막는 막대기를 걸쳐두고 조상신과 여러 신을 청한다. 조상신 이외에 천지신의 상과 재물신의 상을 차린다. 의식이 시작되기 전에 폭죽을 터뜨리고, 종이를 사른 후 절을 한다.	包子 面条 饺子	트럼프, 마작, 신년맞이 환영회 TV프로그램 관상	발갈기, 작조, 빨래, 바느질, 낚시, 시낭, 멧돼지, 키크질, 물갈기 등 일체의 생업활동을 금하고, 집과 부뚜막 청소 금지 불길한 언어사용금지. 孝음	대련 붙이기 가족제야식사 만두 빚기 조상신청하기 폭죽터뜨리기 종이 태우기 孝음	대련 붙이기 가족제야식사 만두 빚기 조상신청하기 재신청하기 종이 태우기 수세(守歲)하기	대륙에서는 폭죽을 터트리며, 설날프로그램을 시청함 한국에서는 폭죽을 터뜨리지 않지만 날을 새며 守歲한다.
01.01	大年 春节	폭죽을 터뜨리고 세배를 한다. 어린이에게는 세뱃돈을 준다.	饺子	트럼프, 포커, 마작	돈 빌리기 금지 곡식 빌리거나 빌려주기 금지	폭죽터뜨리기 세배하기 세뱃돈 주기	세배하기 세뱃돈 주기 公所에서 團拜	인천화교협회주최로 의선당에서 단체로 제사를 지냄

일차	명칭	주요활동	절식	오락	금기	전승현황		비고
						중국대륙	한국인천	
01.02	狗日	국수를 먹고 돈을 붉은 실에 엮어 목에 달고 다닌다. 지역에 신들을 보내드리는 의식을 한다. 친척들을 방문한다.	包子 饺子 饅頭	가정행렬 응축, 사자춤, 한선타기, 말놀이, 회극보기	시집간 딸과 사위에게 제사상과 조상의 위패 를 보여주지 않음	신들을 돌려보내 는 의식 친정방문	신들을 돌려보내 는 의식	한국에서는 출가와인에게 제사 상과 조상의 위패를 보여주는 것을 불길하다고 여김
01.03		초하루는 닭날로, 저녁에 만두를 먹는다. 그 후에는 개날, 고양이나, 닭, 말날, 양 날, 사람날, 곡식날, 자손날의 순으로 정 하며 10일이 되면 완전한 날이 된다고 믿는다.			친척집 방문금지		친정방문	
01.05	五平日	한선타기, 밥과 만두우 떡 물만두 제사음식들을 양 푼에 담아 가족에게 주며 그동안의 노고 를 치하한다.			친척집 방문금지			
01.07	人日	물만두 먹기 지역에 따라 국수를 먹기도 한다.	饺子 面条					
01.15	元宵节	등불을 만들어 집안 구석구석에 놓고 소 원을 빈다. 성묘도 하고 무덤에도 등불을 켜다 다음날 새벽에 향과 종이를 사르고 청한 조상을 돌려보낸다. 물만두 먹기				등불 켜기	조상 무덤에 등 불을 켜는 습관 (원형) 의식	인천화교의 무덤에는 땅근으로 만든 등불이 놓여져 양초를 색양초, 심전등 등 다양한 등 불이 보임



음력	명칭	주요활동	절식	오락	금기	진승현황		비고
						중국대륙	한국인천	
02.02	龙抬头 Long Taitou	이발을 하지 않는다. 벌레를 쫓는 의식을 행하며 섹종이를 올려 어린이의 목에 걸어준다. 콩을 부거나 강방이를 튀기는 행위를 통해 해충의 다리를 없앤다고 믿는다. 노랑고 볶은 떡을 만들어 저녁에 물만두를 먹는다.	烙糕 水饺 苞米花 炒豆		물간기와 제초작업을 하지 않는다	볶은 콩 먹기	볶은 콩 먹기	두 지역 모두 예전보다 위생상태가 개선되어 해충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잊게 되는 것 같음
	清明 寒食	성묘를 하고 담청놀이를 간다. 말기루로 제비를 만들어 쫓다		연날리기 그네뛰기		성묘 종이돈 태우기	성묘 종이돈 태우기	조상에게 돈을 보내는 날이다
	谷雨 Guyu	바다와 관련된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해신랑랑과 용왕의 제사를 지낸다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 역시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중국 영성의 연 해지역은 그들의 생명과 관련된 용왕제를 중시함	오식업 종사자들을 별다른 활동은 이 없음	한국화교는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화된 경향을 보임
04.08	浴佛节 Yulbeopjeol	부처님을 목욕시켜드리는 날로 묘화가 열린다					초파일에 불교신자들은 절에 간다	중국은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서 그 활동이 미미한 편이다.
05.05		쫄진(粽子)을 싸고 삶은 계란과 염장한 오리알을 먹는다. 이슬을 받아 세수를 하고, 때문에 쑥을 꺾고 창포와 버들가지를 엮어 만든 빗자루나 오색실을 목에 거는 등 벽사초복의 행위를 한다.	粽子 鸡蛋 咸鸭蛋			쫄진 먹기 알 먹기 대문에 쑥 다발 꽃기	쫄진 먹기 대문에 쑥 다발 꽃기 오색끈 자기	화교들은 대만식 교역을 받았기 때문에 용선경기 등 중국남방의 단오풍습을 알고 있으나 행하지 않음

음력	명칭	주요활동	절식	오락	금기	전승현황		비고
						중국대륙	한국인천	
06.06		보보(饅頭) 찌기, 전빵만두 만들기	水面 (조개국수)			전빵만두 만들기	시집간 딸 친정에 고기 사 가지고 가기	
07.07	七夕乞巧	뽕금기(生巧芽, 烙巧花) 请巧姐, 看巧渡, 看巧云, 听巧姐哭	火烧 饺子					
07.15	鬼节	성묘와 종이돈 태우기 바다에 등불 띄워 보내기	饅頭 饺子			성묘	성묘	
08.15	中秋节	달지사, 달 감상, 월병먹기 정오에 전빵 찌고, 저녁에 물만두 만들기	月餅 水果		성묘하지 않음	월병 먹기 가족식사하기	달지사 월병 먹기 가족식사하기	중국은 공휴일 아님 한국은 9일 휴일
09.09	重阳节	飢饉 슬 담기						
10.01	十月一	성묘, 무덤손보기, 지사, 겨울 옷 태워 보 내기	饅頭 饺子			조상에게 겨울 옷 태워보내기	성묘 종이돈 태우기	
	冬至	만더우 찌기, 물만두 만들기 동지(數九)						
12.08	腊八节	아침으로 죽 먹기 저녁에 물만두 먹기	腊八粥 饺子					

\* 본 표의 전통절기의 주요한 활동에 관한 내용은 1999년에 발행된 『榮成市誌』 7)의 절기 부분을 주로 참조하였으며, 중국대륙과 인천화교의 전승과 변이 현황은 2004년부터 2006년 동안 중국과 한국에서 진행된 필자의 현장조사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7) 山東省榮成市地方史誌編纂委員會編, 『榮成市誌』, 齊魯書社, 1999년, 1041~1044쪽

## 4. 나오는 말

이상에서 소개한 화교 전통세시풍속 현장 자료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 요소를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통문화를 수용하고 변용시킨 주체인 사람과 그 전승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문화의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짜임새와 더불어 미세한 구조들을 포착해야 한다. 구체적인 민속자료를 현장 상황 속에서 해석함으로써 현장의 무엇이 자료를 왜 그렇게 존재하도록 하였는가에 주목한다면 민속현상 자체만으로는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시각의 접근을 통해 화교의 세시풍속이 단순한 시간의 지나침이 아닌 역동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의 흐름으로 인식되기를 희망한다.

필자 역시 지금까지 진행해 온 종족성과 조상숭배의 관계, 민간신앙과 생업과의 관계, 정체성과 상징, 전승과 변이의 메커니즘 등 화교의 세시풍속과 관련된 연구주제를 좀 더 심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최근 축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지역의 이벤트 가운데에는 문화 논리와 상관없이 정치 논리나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관 주도의 소비적인 전시행사를 지속하는 일회성 행사가 무의미하게 반복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관광수입을 벌미로 주체인 민중을 소외시키는 일은 없었는지, 높은 사람들의 축하행사를 위해 민중을 들러리 세우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인천의 차이나타운이 화교주민과 인천시민에게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국과 세계인의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위한 신명을 푸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참고문헌>

- 山東省榮成市地方史誌編纂委員會編, 『榮成市誌』, 齊魯書社, 1999.  
 黃今姬, 『祖籍地民俗與華僑群體的認同』, 北京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강경표·안일국, 『도시민속조사보고서09 민속지 인천차이나타운 淸館淸관』, 2012.  
 임재해, 『민속문화를 읽는 열쇠』, 민속원, 2004.  
 정연학, 「인천화교의 민속문화」, 『華僑 세계화의 주역』,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6.

제15기 박물관대학 상반기과정  
인천대 HK중국관행연구사업단 제4회 화교포럼  
화교 디아스포라

■ 발행일 : 2013.05

■ 발행인 : 이명숙

■ 발행처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전시교육과

406-05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TEL. (032) 440-6750

FAX. (032) 440-8871

<http://museum.incheon.go.kr>

■ 인 쇄 : 명우기획(Tel. 032-762-4775)